



Life of Youth

2
1959

청년생활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공산주의적 발기는 실천되고 있다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를 4월 20일 전으로 끝낼 것을 결의

연 600여 리에 달하는 삼등—세포,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에 자진 참가한 교통성 산하 철도 운수 부문 청년들과 이 공사를 협조하여 나선 각지 청년들은 지하리—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를 오는 4월 20일 전으로 완공할 것을 결의해 나섰다.



☆ 남천교 공사를 3월 20일 까지 완공할 것을 결의하고 나선 제1 대대 붉은 전사 청년 돌격대원들의 작업 모습 ☆

☆ 첫 레루를 깔기 시작했다 ☆





☆ 즐거운 휴식의 한 때 ☆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2
(113)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2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2월 10일 발행
(값 30 원 ㄱ—30081) 100,000부 발행

청년들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
인민 주권을 백방으로 공고히 하자!



우리 인민의 진정한 정권인 시, 군(구역)리(읍, 로동자 구)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2월 28일이 가까워 온다.

…

밝고 밝은 새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준
인민 주권 다지는 경사가 났네
에루하 좋다 에루하 좋다 나가자 선
거장으로

…

선거의 날이 가까워 옴에 따라 도시와 마을 마다에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주권을 튼튼히 다지려는 인민들의 결의와 환희가 더욱 드높아 가고 있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빈궁과 무권리,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신음하였다. 청년들에게는 배울 권리도 일할 권리도 심지어는 자기의 모국어로 말할 권리 조차 없었다. 이 모든 불행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의 결과이며 주권을 빼앗긴 피압박 인민의 불가피한 운명이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자 조선 인민들의 생활에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인민 정권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온갖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인민 정권은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고 로동의 권리 및 8시간 로동제와 사회 보험제를 실시하여 주었다. 농민 청년들은 지주가 없고 착취와 빈궁의 사회적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 농촌의 당당한 주인으로 개변되였다.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였던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였고 생활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온갖 조건이 보장되였다.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어느 한때 우리 나라 청년들이 이처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당과 인민 정권의 혜택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와 한날한시에 해방된 남반부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 통치 기구들과 악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는 여지 없이 파괴되였고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실업자와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며 학원은 모리배들의 장사터로, 미제의 대포밥을 양성하는 연병장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 도구이며 지주, 예속 자본가의 집단인 리 승만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적 죄악의 결과이다.

남북 조선 청년들의 판이한 처지—이것은 바로 남북 조선에 수립된 두 정권의 계급적 차이에서 출발한 것이다.

생활은 오직 인민 정권만이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무궁무진한 행복과 화려한 장래를 보장하여 주며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을 자유스럽고 행복스러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위하여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정권의 수립을 위하여 15 여 성상이나 피어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은 조선 혁명 운동에 있어서 진정한 인민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으로 되였다. 이러한 혁명적 전통이 있으므로 하여 조선 인민은 해방 후 오늘과 같은 강력한 인민 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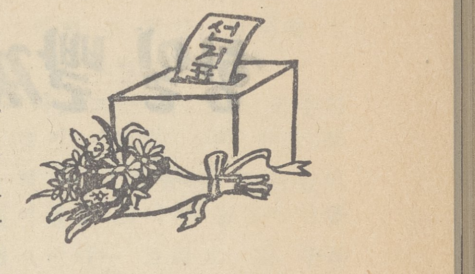
우리의 인민 정권—그것은 우리 혁명 선배들의 피가 스며 있으며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으로 쟁취하고 피로써 사수한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인민 정권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금번 선거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력사적 승리를 달성한 환경에서 진행된다. 이 선거는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 기관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킬 것이다.

청년들은 선거에 한사람 같이 참가하여 우수한 인민의 대표들을 지방 주권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인민 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그의 경제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있다. 전체 청년들은 금번 선거 사업을 모든 부문에서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로동 청년들은 금년내에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산 과제를 매일, 매월, 매분기 마다 어김 없이 지표별로 완수하며 농민 청년들은 전국 농업 협동조합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의 앞장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모든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사회주의 시대의 요구에 상응하게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력사상 인민의 원쑤들이 순순히 정치적 지배권을 양보한 일은 없었다. 청년들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써 원쑤들의 일거 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침해라도 물리치고 우리의 인민 주권을 튼튼히 수호할 수 있게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은 인민 정권의 창건자이며 그의 령도자이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 정권이 달성한 모든 빛나는 업적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그를 정치 사상적으로 철저히 보위하는 붉은 근위대가 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금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며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인 인민 주권을 반석 같이 공고히 할 것이다.

수 필

항일 빨찌산의 영광스러운 계승자

리 종 렬



얼마 전에 나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한 대원을 찾아 간 일이 있다.

그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슴을 터놓고 하였다.

《며칠 전 회의에 갔다가 모란봉 극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인민 군대 동무들이 〈결사전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대오를 지어 행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리는 눈! 우렁차게 부르는 혁명가…… 어쩐지 내 앞으로는 옛날의 우리 혁명 대오가 그대로 걸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그대로다!

우리 인민 군대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과 사업 작풍과 생활 풍습을 그대로 이어 받은 군대이다.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부대가 보천보를 습격할 때 많은 우리 전사들은 아직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들이 입은 군복도 그들이 멘 총도 옛날의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월이 흐름과 함께 낡아지고 부단히 새것으로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고귀한 혁명 정신은 영원히 우리 인민군 대오의 매 병사들의 가슴 마다에서 고동 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 군대의 생명이며 무기이다.

이것은 원쑤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다.

지난 전쟁에서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달려든 데 미국놈들의 패망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있다.

왜놈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 벌써 군사 고문으로 조선 땅을 밟아 본 일이 있는 맥카더는 1950년 11월 24일 성조기를 나붓기며 북으로 북으로 이리떼들처럼 밀려드는 자기 병사들과 장교들에게 이렇게 웨쳤다.

《그대들은 성탄제를 자기 집들에서 맞을 것이다!》

그러나 성탄제가 돌아 왔을 때 놈들은 장진호반과 청천강 부근의 눈 밑에 동태가 되여서 누워 있었다.

뒤'이어 릿치웨이의 《불바다 전술》이 녹아 났고 아이젠하워의 《신 공세》가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놈들은 락동강 류역에서부터 청천강에 이르는 사이의 넓은 땅을 109만 여 명의 자기 장교들과 병사들의 시체로 덮었다. 비행기만 해도 5,700 여 대가 떨어졌다.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에 의하여 빨찌므르 중형 순양함이 동해 바다에 수장되였다. 미군 8군단장 워커 장군은 우리 인민군 공병 전사 최 종운의 총탄에 대가리가 터져서 죽어 버렸다.

미국 장군들이 《미군이 세계에서 최강이라던 신화는 깨여졌다》고 비명을 올린 것은 응당한 일이다.

놈들을 이렇게 패망케 한 뒤에는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얼마나 커다란 위훈이 숨어 있는 것인가!

1,211 고지 전투가 치렬하게 끓고 있을 때 원쑤들은 아군 방어 진지에 대고 한 평방 키로메터 당 3만 여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

폭풍에 날리고 치솟는 흙 기둥들에 파묻히우면서도 우리 인민군 전사들은 굴하지 않고 싸웠다.

바로 이때 영웅 리 수복은 참호에 엎디여서 자기의 수첩에 이런 수기를 적어 넣었다.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 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 처럼 그렇게 큰 희망, 고귀한 생명, 큰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상상해 보시라. 그는 이 글을 조용한 교실에서 쓴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쓰는 사이에도 몇 번 원쑤들의 포탄들이 근처에 와 떨어졌을 것이며 흙덩어리들이 잔등을 쳤으리라… 그리고 리 수복은 자기의 젊은 가슴으로 불을 토하는 원쑤의 중기 화구를 막았다.

그는 김 일성 원수의 전사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히 보여 주었다.

신문들과 라지오 방송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병사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이런 병사들을 직접 보았다.

1,052 고지 방어 전투 때였다. 어느 날 원쑤들과의 치렬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고지는 문자 그대로 날아 다니는 파편으로 덮였다.

얼마 후 박격포 중대의 전사들이 내가 복무하고 있던 위생소로 중상 당한 자기 중대의 한 조준수를 업어 왔다.

그는 원쑤들의 파편에 가슴과 입을 다쳤었다. 한참 후 그는 눈을 뜨더니 손질로 무엇인가 글 쓸 것을 달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이 있는 줄 알고 인차 연필과 수첩을 내밀었다.

그는 수첩에다 이런 글'자들을 그렸다.

《이겨라… 우리는 꼭 이긴다, 동무들…》 그리고 그는 연필을 놓으며 손을

맥 없이 땅에 떨구었다.

그렇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정신을 이어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승리를 믿으며 싸웠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곤난이 앞을 가로막아도 용감히 뚫고 나갔다.

1,052 고지 방어 전투 때 우리 대대는 적과 거의 10 메터도 못되는 사이를 두고 싸우게 되였다. 적아간의 거리 10 메터! 이런 류례는 세계 전쟁 력사에 없었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의 전사들인 우리가 무엇인들 못해 내겠는가! 우리는 고지 뒤로부터 잠복 초소에까지 갱도를 팠다. 그리고 그 갱도 속에 식당, 목욕탕도 차려놓고 문화적으로 살며 짬이 있으면 화선 악기를 만들어 노래와 춤을 추면서 싸웠다.

미국놈들은 모든 면들에서 우리들에게 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전쟁 말기에는 바빠나면 확성기를 통하여 서로 총질하지 말고 화선 정전 담판을 하는 것이 어떤가고 비명을 올렸던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떨친 위훈은 항일 빨찌산의 고귀한 혁명 전통과 떼여 놓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가슴 마다에는 언제나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지 그리고 혁명적 동지애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그 고귀한 사상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부상당하여 썩은 다리를 톱으로 자르고 최후 순간까지 원쑤와 싸운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제 2사 군수부장 김 병의 동지의 불굴의 혁명적 투지는 두 팔다리를 잃었으나 입에 수류탄을 물고 원쑤들의 무리 속에 굴러 떨어진 당원 강 호영의 심장 속에 살아 있었다.

명절 날 밤이면 중대들에서 특무장들이 명예 병사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들 속에는 리 수복, 황 순복, 신 기철, 박 원진 영웅들의 이름도 있다.

이럴 때면 대오에 선 젊은 병사들은 혼자 자기 가슴 속으로 말한다.

《그들 처럼 훌륭한 김 일성 원수의 전사가 되여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훈련하며 학습하는 그들은 당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매일 매일 강철의 전사로 단련되여 가고 있다.

유격대의 고상한 혁명 정신을 배우며 또 이런 투사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병사들은 참말로 영예스럽고 행복하다. 이 영예를 간직하고 우리 병사들은 오늘도 사회주의 조국의 초소에 반석 같이 서 있다.

내가 351 고지 분계선 초소에 갔을 때 흥남이 고향인 김 재국이란 한 병사는 밤'중에 초소에서 돌아와 털 외투를 벗으며 이렇게 물었다.

《평양에서는 집 한 세대를 짓는데 십 삼분도 못 걸린다지요?》

《그렇소 지금은 훨씬 더 빨리 짓소.》

《그러니 우리가 초소에 서 있는 사이에만 해도 몇 세대의 집들이 생기겠구만요. 참 참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전사들은 초소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근로자들의 빛나는 로력적 성과들을 지키고 있다.

김 일성 원수의 전사들이 지키고 있는 우리 조국의 초소는 언제나 철벽이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무장을 위하여!

리 봉수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동만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 유격대가 조직되기 시작한 첫 시기인 1932년 봄 나는 훈춘현 성구에서 공작하다가 금구에 갔다. 금구는 훈춘현 경신향 지구의 지하 당 조직구였다. 당시 간도 지방에서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조선 농민들이 일으킨 추수 폭동(1931년), 기민 폭동(1932년)은 원쑤들에게 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었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폭동들이 있은 이후 원쑤들의 탄압은 더욱 심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구에서도 많은 간부들과 선진적 농민들이 체포 학살되여 당 조직과 군중 단체 조직들이 한때 파괴 상태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혁명성이 강한 군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이 지구에 간지 한달이 지난 후에는 벌써 경신향 37개 툰중 34개 툰에서 당 및 군중 단체 조직이 거의 다 복구되였다.

당시 그 지방 혁명 투쟁의 중심지는 우두포였는데 저녁 때면 아동단원들이 혁명 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르며 다닐 정도로 대중들의 혁명 기세가 높았다.

이때 놈들은 자기들의 주구인 자위단을 내 세우려고 했으나 우리 조직이 강한 곳에서는 친일 세력도 맥을 쓰지 못하였다.

경신향에서 각종 혁명 조직들이 지부에 이르기까지 다 나왔을 때에 당 상급 기관에서는 무장 대오를 조직하기 위하여 무기를 자체로 획득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무장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려면 오직 손에 무장을 들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무장 투쟁에로 넘어갈 데 대한 당의 지시는 가장 정당한 것이였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대단히 기뻐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매일 같이 아무 곳에서는 누가 경찰놈을 까부시고 총을 빼앗았다, 또 아무 데서는 녀성들과 아동들이 총을 빼앗았다 하는 소문이 퍼지였다. 무기를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다.

당의 지시를 받고 나는 무장 있는 장소를 비밀리에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하부의 당 지부들에 전달하였다. 각 지부들에서는 곧 통신이 들어 왔다.

통신을 종합하여 보니 무기는 경신향에만도 20 여 정이나 되였다.

《이 무기들을 다 로획하여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한자루의 무기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의 지도가 있었고

혁명성이 강한 청년들이 있었다.

나는 안 길, 맹 춘, 김 두칠 동무들과 비밀리에 회의를 가지였다. 회의에서는 원쑤들로부터 무기를 빼앗기 위한 임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런 공작은 아직 누구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나 모두들 그 20여 정의 무기를 다 로획하자고 결의하였다.

우리들은 우선 세관놈의 《칠성자》(권총 이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지였다. 그러나 맨 주먹만 가지고 총 있는 놈에게 달려 들 수는 없었으므로 세관놈을 위협할 수 있는 가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김 두칠 동무에게 나무로 권총 한 자루, 장총 네 자루를 만들 과업을 주었다. 그는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칠 동무는 밤을 새우면서 나무를 깎아 목총을 만들었는데 검댕이까지 칠하여 놓으니 얼핏 보기에는 진짜 총과 꼭 같았다.

《권총》은 내가 가지고 《장총》들은 다른 동무들이 각각 나누어 가지였다.

❊ ❊

1932년 6월 (음력)초에 우리들 5명은 목총을 가지고 찬 이슬을 차면서 벌'둥을 향하였다. 그날은 어스름한 달'밤이였다.

우리들은 첫 무장 공작을 나가는 것만큼 몹시 흥분되였다. 가짜총을 가지고 원쑤와 정면으로 맞다 들어 무장을 빼앗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기를 기어코 빼앗을 각오였다. 그리하여 처음에 모두들 지나치게 긴장하였으나 안 길 동무는 매우 침착하였다.

그날 저녁 무장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안 길 동무가 맡았다. 그것은 안 길 동무가 패기 있었으며 또 중국말도 잘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기를 꼭 빼앗고야 말 결심을 굳게 하였다.

벌'둥에 도착하니 세관놈의 집은 모두 잠든 모양으로 불을 끄고 잠잠하였다.

안 길 동무가 뒤'창문 쪽에 서고 나는 부엌문 입구에 섰다. 다른 동무들도 각각 창문이 있는 곳에 다가섰다. 그때 함께 간 것은 안 길 동무 외에 그의 사촌 동생 안 상호 동무와 맹 춘, 김 두칠 동무들이 였다.

우리들이 자기 맡은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안 길 동무가 《뻬둥》 (끔짝 말라는 말)하고 벽력 같이 소리쳤다.

세관놈은 불의의 습격에 놀라 일어섰다. 어두운 방안에서 두리번거리던 그놈은 창문마다 들여 민 《총》끝을 보고는 깜짝 놀라 사시나무 떨듯 하며 손을 쳐들었다. 당황한 그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엇이 요구되오》하고 겨우 말하였다.

안 길 동무는 《요창 뿌요밍》하고 엄하게 말하였다.

이 말은 총만 내 놓으면 목숨은 살려 준다는 유격대의 구호이다. 유격대원들은 괴뢰 탈주병 또는 토비, 산림대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그들을 투항시킬 때에 이 구호를 사용하였다.

겁에 질린 세관놈은 엉거주춤하며 《칠성자》 권총을 뒤'문으로 내여 밀었다. 왜놈들에게 붙어 조선으로 드나들면서 인민들의 주머니를 강도처럼 털어 먹고 사는 세관놈은 그 더러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무서워 간이 콩알만 했던 것이다.

나는 《칠성자》를 목제 《권총》과 바꿔 쥐고 부엌으로 들어 가며 그놈에게 불을 켜라고 하였다. 세관놈이 불을 켠 다음 로획한 권총을 내들고 《네 놈에게 총이 더 있을 터인데 있는 대로 다 내

놓으라》고 하였다. 그놈의 가족들은 무릎을 꿇고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걸하였다. 그 자는 총은 더 없지만 탄알은 좀 있다고 하면서 탄알 일곱 알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여 첫 무장 공작은 성공하였다.

동무들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후부터 우리들에게는 자신이 붙고 더욱 용기가 났다. 벌'둥 세관놈이 습격 당하였다는 소식이 왜놈들에게 알려지면 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적들이 발광하면 우리는 계획한 무기를 전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서둘려서 단시일내에 20여 정의 무기를 완전히 탈취해 내야 하였다. 다음 날에는 사막봉 지주집을 습격하기로 하였다. 이 지주는 성이 왕가인데 본래는 토비 노릇을 하던 자로서 돈도 많고 이전에 백파놈들에게서 사들였던 무기를 몇 자루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해 떨어질 무렵에 쏘 중 국경선에 바싹 붙어서 사막봉으로 갔다. 지주집에 당도하니 날은 어두워졌고 달'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스름했다. 밖에 보초를 세우고 안 길 동무, 맹 춘 동무와 함께 나는 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다.

《우리는 자위단에 있는 사람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저녁이나 좀 해 줄 수 없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니 지주놈은 어서 들어 오라고 하였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놈과 담판할 계획이였다. 지주놈은 우리가 정말 자위단인 줄만 알고 밥상에다 술까지 받쳐서 들여 왔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안 길 동무와 맹 춘 동무가 번갈아 통역을 하였다.

얼마간 있다가 나는 상 우에 권총을 내여 놓으며 지주놈에게 《우리는 공산당원들이요, 당신네 집에 총이 있다는데 그 총을 내 놓소》 하고 말하였다.

《만약 그 총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왜놈들의 손에 넘어 가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왜놈들은 그 총으로 중국 사람들을 죽일 것이니 내놓아야 하오, 우리는 그 총으로 일본놈을 잡아야 하겠소.》

교활한 지주놈은 총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령감께 총이 있는 줄 알고 왔소》 하고 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지주놈은 끝내 없다고 고집하였다.

《만일 총이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소》 하고 위협하면서 우리는 지주놈을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 놓았다. 고'간에 들어 가보니 총 세 자루가 나타났는데 퉁포 (구식 보총의 일종)와 렵총들이였다. 우리는 그 총을 들고 나와서 《네놈은 소작인의 피땀을 빨아 먹으며 일제에게 아부하는 인민의 원쑤다. 당장 죽여도 좋다. 그러나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한다》 하고 그놈을 풀어 놓고 돌아 왔다.

이렇게 이틀 저녁 련달아 우리들이 총 있는 놈들을 습격하게 되자 《공산당 무장대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였다. 이 소문은 우리들 공작에 불리한 점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총을 가지고 있는 놈들의 일부는 겁을 집어 먹고 두말없이 총을 내 주어야 무사하겠다고 생각하게까지 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 날 구사평 지주집에 갔을 때 그 지주는 공손히 《베르단》(한 발씩 장탄하고 쏘는 구식 보총) 한 정을 내여 주었다. 나흘째 저녁에는 네째 늪에 있는 지주집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밤을 꼬박 새며 위험을 무릅쓰고 원쑤들의 총을 빼앗는 한편 당 지부들을 통하여 계속 총 있는 곳을 알아 내기에 애썼다. 사막봉에서 온 통신에 의하면 지주 왕가놈에게는

본래 총이 일곱 정이 있었는데 아직도 좋은 총이 남아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다시 그놈에게로 떠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완전히 자위단으로 가장하여 회색 복장을 입고 자위단 모자를 쓰고 곤봉을 꽁무니에 찼다.

당시 이 지방의 자위단놈들은 조직초기여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대낮에 사막봉 지주놈 집으로 갔다. 《자위단》이 오는 것을 보자 지주놈은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우리는 자위단놈들처럼 호기 등등하여 지주놈에게 문죄하는 투로 들이댔다.

《당신은 지난 초여새'날에 공산당이 와서 총을 가져 갔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소?》 그놈은 이러쿵 저러쿵 긴 변명을 늘어 놓았다.

《여보 령감! 당신 집에 총이 아직 남아 있다는데 우리에게 내놓소. 령감이 그 총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공산당이 와서 빼앗아 갈 것이 아니요?》 하고 나는 을러댔다.

《령감이 총을 내놓지 않는걸 보니 공산당과 내통하여 그들에게 또 주자는 심보지?》 하고 추궁하였다.

그랬더니 지주놈은 벌벌 떨면서 고'간 밑 지하실에 총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바로 전번에 총이 있던 그 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제 싸창과 아식 보총이 있었다.

❄ ❄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후 계속적으로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 도합 25정의 총을 로획하여 경신향에서는 유격대 한개 중대를 조직하였는데 그때 중대장으로는 박 진영 동무가 임명되였다.

우리는 이렇듯 원쑤들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였다. 이리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싸운 유격대는 칼과 창, 혹은 룡포, 양포 등 초기의 락후한 무기로부터 점차 발전된 무기와 기관총까지 가지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제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던 것이다.





혁명 전사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끝까지 충실했다

전 문 섭

간고하였던 투쟁의 지나 간 나날들을 회고할 때 마다 나는 우리 항일 빨찌산 대원들에게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꾸준히 학습하라고 간곡히 교시하시던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을 생각하군 한다.

지금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훌륭한 상학실에서 학습하고 있으며 휴식할 때나 저녁이면 밝은 군중 교양 사업실에서 조용히 책도 읽고 라지오 앞에서 새소식이며 노래도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빨찌산 투쟁을 하던 그 때는 좋은 상학실은 고사하고 일정한 상학 장소도 없었으며 필기장이며 등'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싸움을 하다가도, 행군을 하다가도 걸터 앉는 곳이 곧 상학 장소로 되였으며 토론장소로 되였다. 우등'불을 피워 놓고 나무 밑에 기대여 학습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일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투, 끝없는 밀림과 설령을 넘는 강행군, 그리고 피복도 식량도 떨어지고 수십일씩 소금 구경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 오면서도 항상 꺼질 줄 모르는 승리의 신심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락관주의로 우리 전사들의 가슴을 불타게 한 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였다.

나는 지휘부 직속 경위 중대에 있였기 때문에 종종 김 일성 원수로부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항일 작전의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늘 시간을 짜내여 우리 대원들 앞에 출연하시였으며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쏘련 공산당 력사》, 《공청원의 수양》, 《사회주의 대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였다. 또한 김 일성 원수께서는 자기 인민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할 것을 늘 강조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위대한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쏘련으로부터 허심하게 배워야 할 것과 중국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할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 때에 벌써 우리 빨찌산 대원들은 김 일성 원수로부터 자기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귀한 사상을 배웠고 이 사상을 위하여 몸바쳐 싸웠다.

1941년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에게는 보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 왔다.

이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면서 쏘, 만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한편 일제 군대들은

우리 항일 빨찌산들에 대한 류례 없는 악랄한 《토벌》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러는 한편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은 일본과 중립 정책을 체결했고 일본군은 중국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다. 빨찌산은 고립되여 있으며 바다의 좁쌀알 만하다. 그러니 〈대일본 제국〉과 싸울 수 있는가? 빨리 투항하라!》고 위협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교한 술책으로 우리 항일 빨찌산을 와해시키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의 령도를 받는,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항일 빨찌산들은 눈 우에서 바위를 베개로 삼고 쪽잠 든 꿈'결에도 혁명과 조국과 인민을 잊지 않았고 또한 추호도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며칠씩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의 나날에도 항일 빨찌산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원쑤를 증오하였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궐기하였다.

어느 날 나는 김 일성 원수로부터 지방 공작을 나간 동무들과 련락을 맺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때 우리 빨찌산은 지방 정치 공작으로 소부대를 떠내 보낸 다음 곧 지휘부를 옮기고 그 자리는 련락처로 만들었다. 련락은 매일 가는게 아니라 지정된 날'자에만 가게 되여 있었다.

김 일성 원수의 명령을 받은 나는 점심 때쯤 해서 지정되여 있는 련락처에 당도했는 데 거기에는 아직 아무도 와 있지 않았다.

숲 속에 숨어 있는가고 가만히 앉아 살펴 보았으나 숲 속에도 역시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았다.

벌써 예정 기일 보다 1주일이 지났는 데도 그 동무들은 감감 무소식이여서 지금 매우 근심하고 계실 김 일성 원수를 생각하니 나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혁명적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이의 심정을 생각할 때 내 몸에서는 진땀이 쏟아져 나왔다.

숲 속에서 나온 나는 큰 몽둥이를 얻어 나무를 몇 번 쳤다. 나무를 치는 것은 련락을 왔다는 우리의 신호였다. 몇 번 이렇게 되풀이 했으나 나무를 치는 여음만이 숲 속으로 퍼져갈 뿐 동무들의 대답은 없었다. 그 때 나는 돌아 갈 시간도 되였고 해서 맥 없이 발'길을 돌리려는 데 어디선가 모기 소리만한 인기척을 들었다. 나는 인기척 난 곳으로 뛰여 갔다. 얼마 안되여 내 앞에는 큰 나무가 나타났는 데 껍질이 벗겨진 그 나무에는 숯덩이로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김 익현과 × ××는 혁명 임무를 수행하다 굶어 죽었다…》 여기까지 읽은 나의 가슴은 벌컥 뛰였다.—아니 굶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나는 미여지는 듯한 가슴을 부여 잡고 사방을 휘돌아 보았다. 저편 나무 밑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급기야 달려가 보니 꼼짝 않고 누워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은 벌써 새파래져 있었다. 그들 두리에는 그 전날 우리 빨찌산들이 먹고 던졌던 뼈다귀가 딩굴고 있는 데 그걸 불에 태워 긁어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들은 련락 온 나를 간신히 알아 보았다. 나는 가지고 간 식량으로 그들의 원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 그들은 얼마 전에 지방으로 정치 공작을 나갔었다. 지방 공작을 끝내고 돌아 오는 도중에 그들은 식량이 떨어졌다. 식량을 구할 길 없는 밀림 속에서 그들은 물을 자꾸 마셨으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주린 창자를 물로는 메꿀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몸은 솜 같이 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여서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말은 이러하였다. 10 년간이나 혁명을 위해 산에서 싸우다가 어찌 김 일성 동지와 기타 여러 동지들을 남

겨 놓고 산에서 내려 가겠는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동지들을 버리고 산에선 못 내려 가겠다. 맑스—레닌주의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가리켜 주었고 동지들은 지금 그 길을 따라 나아 가고 있다. 그러니 동지를 버리고 산에서 내려 간다는 것은 패망의 길을 찾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천신만고하여 여기까지 기여 왔던 것이다.

그들을 업고 끼고 지휘부에 돌아 왔을 때 김 일성 원수께서는 대단히 반가와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리고 김 일성 원수께서는 전체 빨찌산 대원들을 모아 놓고 말씀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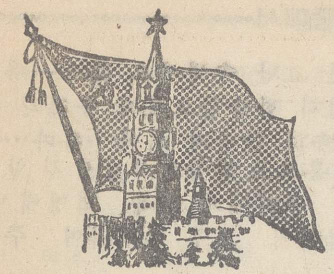
나는 그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지 않는다면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승리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암둔해질 수 있다. 실례를 들어 보자, 우리가 큰 산을 넘어 가는데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령마루에 올라 서면 앞이 턱 티여 어디나 바라볼 수 있으며 자기 갈 길을 정확히 찾아 낼 수 있다. 그러나 힘들다 하여 못 올라간 사람은 앞이 콱 막히고 험한 덤불만 보이니 도로 내려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 사업에서 물러 서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면 마치 령마루에 올라 선 것처럼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기 갈 길을 똑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산'기슭에서 헤매는 것처럼 앞이 막혀서 길을 찾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열심히 학습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하루 속히 앞당겨 와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김 일성 원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혁명에 충실할 데 대하여 고무 격려하여 주시였다.

우리 항일 빨찌산이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험준한 행로였다. 그러나 그 행로는 승리의 길이였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길이였으며 조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였다.

오늘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당의 전사로서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단히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배우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건설의 웅대한 화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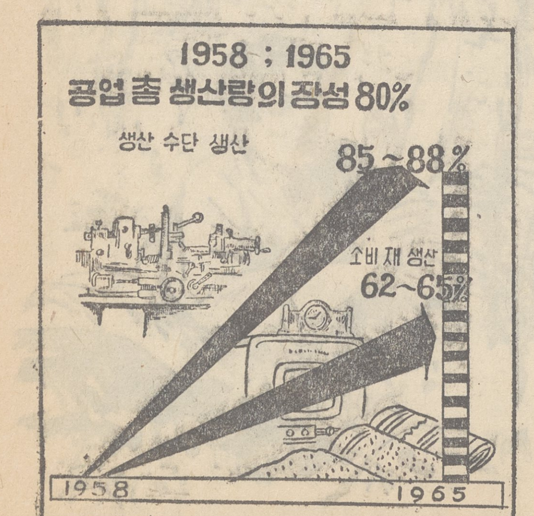
쏘련 공산당 림시 제 21차 대회는 쏘련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 즉 공산주의 사회의 전면적 건설의 시기에 들어 섰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회에서 승인된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통제 수'자는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강령을 그린 하나의 웅대한 화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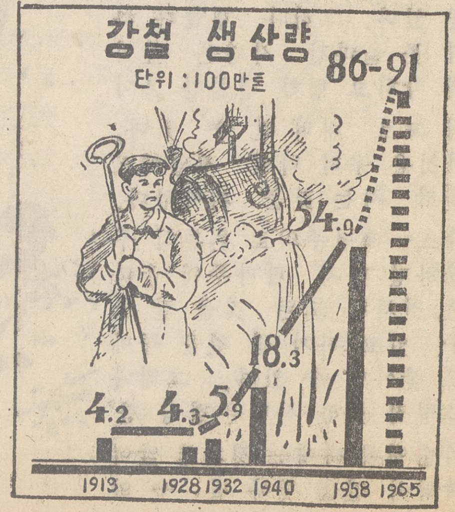
우리는 이 화폭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보며 전 인류의 최선두에서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 있게 나아 가는 쏘련 인민의 장엄한 행진을 본다.

쏘련의 7개년 계획의 수행은 쏘련의 경제를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릉가하게 할 것이며 나아 가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대회로서 쏘련 력사에 영원히 빛날 쏘련 공산당 림시 제 21차 대회와 그의 결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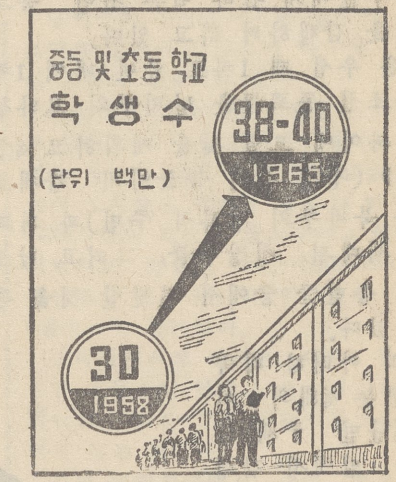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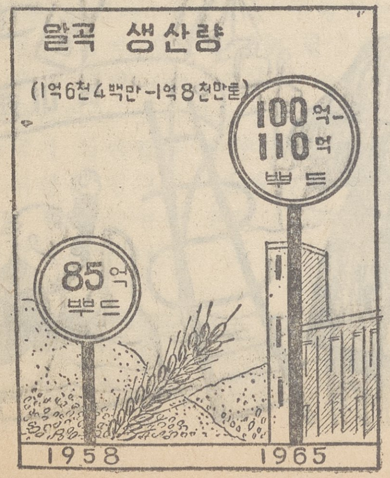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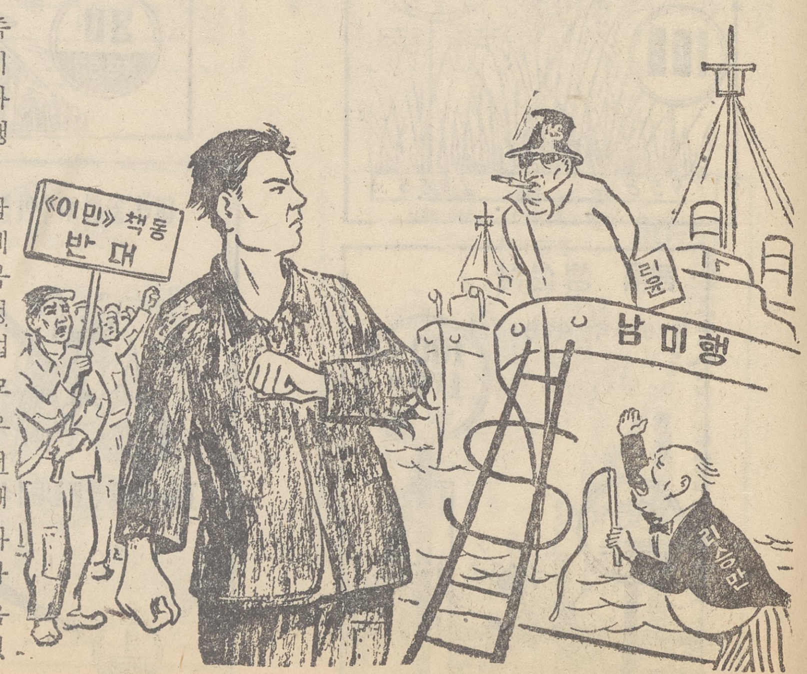


리 승만 역도의 천추에 씻지 못할 또 하나의 민족 반역 행위를 규탄한다!

매국 역적 리 승만 도당은 최근에 또 하나의 매국 배족적 흉책을 꾸며냈다. 놈들은 남조선 동포들을 외국의 자본가와 농장주들에게 팔아 먹는 천인 공노할 죄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놈들은 우선 제 1차로 금년 내에 1천명의 남조선 동포들을 남미주의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보낼 것을 계획하고 《월남 난민》(전쟁 시기 놈들에게 강제로 끌려 간 북반부의 평화적 주민)과 괴뢰군에서 제대된 청장년들, 그리고 남조선 령세 농민들 중에서 선발할 것을 흉책하고 있다.

놈들의 이러한 배족적 행위는 《해외 이민》, 《난민 구제》라는 명목 밑에서 감행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와 남조선은 한날 한시에 해방되였다. 그후 북반부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실업과 빈궁, 착취를 모르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그런데 남조선은 무엇 때문에 민족 산업이 파탄되고 농촌 경리가 황페화된 기아와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였는가?

그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14년간의 반인민적 학살 테로 통치의 결과이다. 놈들의 《이민》 책동이 추구하는 목적은 남조선 인민들을 참을 수 없는 고통에로 몰아 넣은 미제의 략탈 정책과 리 승만 역도의 학정의 후과를 음페하며 인민들을 노예로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데 있다.

오늘 미국에는 500만을 넘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 7년째 기아가 계속되여 수다한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 서북방 해안 도시인 포르탈레자시에서만도 금년 1월 중 며칠 동안에 400여명의 어린애가 굶어 죽었다. 파라과이 역시 마찬가지다.

제나라 인민들도 멕여 살릴 수 없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남조선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자본가와 농장주들의 착취와 억압의 채찍 뿐이다.

조선 청년들은 남조선 동포들을 종신 노예로 팔아 먹으려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책동을 치솟는 민족적 격분으로 견결히 규탄하며 놈들의 매국 배족적 흉책을 분쇄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남조선 동포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 의무이다.

공화국 정부에서는 놈들의 《이민》 책동을 규탄하는 동시에 외국에 노예로 팔아 먹으려는 남조선 형제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북반부로 넘어 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화국 공민의 권리를 주며 직업과 생활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이며 념원이다.

우리에게는 남반부 형제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여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외국 자본가와 농장주들에게 팔아 먹으려는 남조선 실업자들과 전쟁 시기 강제로 끌려 나간 북반부 지역 주민들을 하루 속히 공화국 북반부로 넘겨 주어야 한다.

남반부 인민과 청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미제 침략자들을 남반부에서 당장 물러 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전체 남북 조선의 애국적 청년들은 원쑤들의 매국 배족적 죄행을 철저히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남미주는 인간 생지옥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들이 남조선 동포들을 《이민》으로 팔아 넘기려는 남미주는 기아와 빈궁, 질병의 지옥으로 이름난 곳이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인구가 1억 2천 600만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8천 500만 이상이 기아 상태에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중세기적 가혹한 노예 로동이 성행하고 있다.

남미주의 농장들에서는 원시적 농경이 그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하루에 19시간의 로동이 강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조선 동포들을 《이민》으로 팔아 넘기려는 파라과이에서는 토지 없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94%를 차지하는데 노예들은 족쇠를 채운 채 하루에 19~20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임금은 겨우 600—700 파라니인데 이것은 한 가정의 실제 생활의 6분지 1에 불과하다.

브라질에서도 사정은 이와 동일한바 농업 로동자의 임금은 평균 1,000 쿠루제이로 이것은 실지 생활비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농장 로동자들의 파업은 총검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으며 혹심한 민족 차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최근 50년간에 5만명을 훨씬 넘는 로동자들이 학살당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각종 질병들이 성행하고 있는바 브라질에서는 마라리아에 의한 사망자만 하여도 매년 8만명을 넘는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평균 수명은 놀랠만치 짧은바 파라과이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수명은 29세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인디안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데 이들은 본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였는데 지금 그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17세에 불과하다.

정치 강좌

조선 로동당 (2)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건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당 창건의 기초가 축성되였다.

조선 로동당의 력사는 얼마 오래지 않다. 그러나 로동당은 조선 인민의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 투쟁 행정에서 창건되였으며 강화되였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사상이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이 제고되고 로동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로동 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20 년대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로동자들의 대중적 파업 투쟁과 농민들의 소작 쟁의, 학생들의 동맹 휴학 등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이 끊임 없이 전개되였다.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 인민들은 비단 일본 략탈자들을 반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민족 반역자, 친일파,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의 합법칙적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였다.

조선 공산당은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추동력을 주었다.

그러나 그 당은 맑스—레닌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하고 레닌적 당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에 엄밀히 립각하지 못한 데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 속에 뿌리 박지 못하였다. 특히 당의 지도부에 잠입한 종파 분자들의 《헤게모니야 쟁취》를 위한 파벌 투쟁으로 말미암아 로동 운동에 대한 볼쉐위크적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1928년에 해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로동 운동 내에 기여 든 종파 분자들은 1920 년대에 장성 발전되고 있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적 투쟁에 저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분렬시키는 해독적 행위를 하였으며 당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의 종파 분자들은 혁명에서의 그 어떠한 로선상 대립이나 견해상 차이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사리 사복과 직위 탐욕에서 나온 것이며 로동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야》를 장악하기 위한 무원칙한 파벌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종파 분자들의 대부분은 그 후 결국 자기들의 더러운 종파적 야욕을 위하여는 혁명의 어떠한 적과도 야합하여 나서면서 당과 혁명을 팔아 먹는 반당 반혁명의 길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 공산당은 해산되였으나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계속 장성 발전하였으며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곤난과 애로를 용감히 타개하면서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수행하며 진정한 로동 계급의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특히 1930 년대에 들어 서면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당시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과 대중 운동을 조직 전개하면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과 당 창건 도상에 가로 놓인 가장 큰 해독물인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당장 국내에서 통일적 당을 창건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국제 공산당과의 직접적 련계 밑에 당 생활을 할 수 있는 유격대 내에서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및 기타 동북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에서 공산당 단체와 공청 단체들을 조직하고 국내외에서 공산주의적 핵심을 육성 단련시키면서 분산되여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결속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을 대중의 정치 경제 투쟁과 결합시키면서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반일 통일 전선체로서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여 혁명 력량을 집결시킴으로써 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국내 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내 각지에 정치 공작원을 파견하고 또는 무장 대오를 국내에 진출시켜 국내의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계를 맺고 그들을 결속시키면서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핵심을 꾸리였다. 이리하여 국내 공산주의 운동을 조직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에 의하여 운동을 목적 의식적으로 지도케 하였으며 운동 행정에서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항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히 립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지도적 핵심들은 수많은 국내외의 견실한 공산주의적 핵심을 묶어 세워 혁명 투쟁에서 조직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인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을 통하여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을 혁명 투쟁에 조직 동원하였으며 이 투쟁 행정에서 육성 단련된 선진 로동자, 빈농들로써 공산주의적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하였다.

이 시기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 치렬히 전개되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은 더욱 혁명화되여 갔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 대렬 내에서는 진정한 공산주의적 령도적 핵심이 육성 단련되였고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준비**가 이루어 졌다.

이와 함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단체 및 유격대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정치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 혁명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수행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당시 조국 광복회의 강령은 조선 인민이 나아 갈 인민 민주주의적 길을 가리켜 주었으며 우리 혁명의 전략 전술의 기본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혁명적 출판물들과 구두 선전 및 선동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광범한 정치 교양 사업을 진행하여 대

중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당 창건을 위한 **사상적 준비**도 이루어 졌다.

이리하여 1930~1940 년대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장차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준비를 이루었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 육성된 혁명적, 령도적 핵심을 골간으로 하고 이 투쟁에서 이룩하여 놓은 조직적 사상적 준비의 토대 우에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새 형의 당이 창건되였다.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된 후 조선 로동 계급 앞에는 공고한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결속한 혁명적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며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창건할 혁명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우선 조선 혁명을 령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적인 통일된 당을 창건 강화하는 가장 긴급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리하여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한 혁명적 전통 및 령도적 핵심과 조직 사상적 준비의 토대에 기초하여 당 창건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 난관은 우선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리된 사정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과 장기성을 조성하였다.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의 당 건설 사업은 북반부에서 새 사회 건설을 지도하며 국내외의 반동 세력과 직접 대치된 조건하에서 대중을 전취하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 조직 동원하는 어려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야 하였다.

또한 해방 전에 통일적인 당이 없이 8.15와 같은 대 사변을 맞이 하였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로 철저히 무장한 우수한 간부들이 부족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창건의 난관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당 창건을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진 종파가, 당이 없었기 때문에 당내 투쟁을 통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존속하여 오다가 8. 15 해방 후 다시 나타나 당 창건을 반대하는 종파 활동을 감행한 데 있었다. 당시 남반부에서 박 헌영은 《콩그룹》과 종파적으로 결탁한 《화요파》분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과거 《엠. 엘파》에 속하였던 분자들은 그의 변종인 《장안파》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자파 세력 확장에 몰두하였다. 이 틈을 리용하여 지방 당 단체들에서는 개인 영웅주의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이 당이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렇게 당 창건 사업은 몹시 복잡하였고 어려웠다.

당 창건 도상에서 조성된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함이 없이는 해방후 우리 나라 각지에서 조직된 지방 당 단체들을 결속하여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의한 규률 있는 통일적인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으며 미제에 의하여 규합되고 있는 국내 반동 세력을 분쇄할 수 없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이 혁명의 변절자들의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본질과 죄행들을 폭로하며 조선에서 견고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당이 가져야 할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정치 로선에서 우리 혁명은 여전히 반제 반봉건 혁명이며 때문에 창건되여야 할 당은 각계 각층을 망라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적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민주 개혁들을 실시함으로서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건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창건하여야 할 당은 확고한 레닌적 조직 원칙에 의하여 창건되여야 하며 해방 직후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당 중앙은 쏘련 군대가 진주한 북반부에 두어야 한다는 당 창건의 조직 로선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가 당시 우리 나라의 형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제시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로선에 기초하여 자기의 전우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들을 폭로 극복하면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로선들에 의거하여 당 창건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당은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시에 당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의 강령상 요구와 규약상 요구를 승인하였으며 당의 강령 전술 및 조직상 견해의 통일이 기초 지어졌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1945년 12월에 소집된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당내에는 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조직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당내에 존재한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 개인 영웅주의 등 각종 반당적 분자들과 당내에 기여 든 각종 이색 분자 및 암해 분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어 그를 극복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해방직후 우리 당이 종파분자들과 혁명의 변절자들, 혁명의 원쑤들의 갖은 책동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할 수 있은 것은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1930년 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구축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와 해방 직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제시된 김 일성 동지의 옳은 로선과 탁월한 지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당은 다시금 종파분자들과 혁명의 변절자들의 롱락물로 되고 말았을 것이며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당을 가질수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혁명의 승리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오늘 전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여 있으며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인민을 혁명 승리에로 확고하게 령도하는 강력한 당으로 되였으며 국제 로동 운동에서 우리 당의 위신은 날로 제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옳은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창건 될 수가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강력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밀림아 이야기 하라

송 영 작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인 1930 년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의 수 많은 일화 가운데서 취한 소재를 작품화 한 것이다.

1935년 눈보라 치는 어느 겨울날—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학대에 못'이겨 최 병훈 일가와 그의 사돈 송 용식 일가는 정든 고국을 등지고 중국 (만주) 땅으로 이주한다. 압록강변에서 국경 수비대의 총에 맞





아 최 병훈의 안해는 희생된다.

최 병훈의 안해는 멀리 백두의 련봉이 바라 보이는 곳에 고히 묻어 달라고 부탁하며 숨을 걷운다. 최 병훈이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가루가 되어도 반드시 원쑤를 갚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

백두산아 이야기 하라！
백두의 밀림아 이야기 하라！
김 일성 장군이 선두에 선 빨찌산！
어느 때나 반드시 승리하리니
백두야 밀림아 이야기 하라！

그후 최 병훈 일가와 송 용식 일가는 장백현 어느 산촌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 이 마을에서 최 병훈이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한 공작원으로서 일제에 충실한 구장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이 사정을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른다. 이미 빨찌산 대오에 참가하고 있는 최 병훈의 사위 명호만이 이 사정을 알고 있다.

1937년 봄 마을 청년들은 빨찌산에게 보낼 군량 방아를 찧고 있을 때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의 보천보 전투 승리의 소식이 전해 온다. 마을 청년들은 더욱 흥이 나서 방아를 찧는다.

방아로세 방아로세
이 방아는 무슨 방아？
나라 찾는 해방 방아지
독립되는 자유 방아지
우리들의 행복 방아지
자손 만대 번영 방아지

이렇게 처녀들이 방아를 찧고 있을 때 마을을 한바퀴 돌아 보고 오던 최 병훈이는 사돈 송 로인을 만난다.



최 병훈이는 송 로인에게 깊은 밤'길 빈 지게 지고 다니는 것은 유격대로 통하는 길이라 하면서 조심하라고 타이른다. 이에 격분한 송 로인은 약혼이고 사돈이고 간에 왜놈 한테 꼬리치는 개 구장의 딸이 내 며느리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최 병훈의 면상에 침을 탁 배앝고 만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최 병훈이는 꾹 참고 집에 돌아 간다.

개 구장의 딸로서 동리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복순이는 아버지에게 제발 개 구장 노릇을 그만 두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만약 제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복순이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까지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잘 살면 그만 아닌가고 한다. 복순이는 흐느껴 울며 괴로워 한다.

아 분하여라, 원망스러워라
그렇게 왜놈을 미워하던 아버지
굳은 결심 다지고 강 건너 온 아버지
상전이 벽해된들 그렇게야 변할손가

최 병훈이와 복순이는 괴로운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놈들이 마을에 나타난다. 일제 놈들은 마을 사람들이 산산히 흩어져 있으면 유격대와 련락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집단 부락에 이주시키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집단 부락 이주를 완강히 반대해 나선다. 그러자 일제 놈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송 로인을 비롯한 죄 없는 사람들을 체포해 간다.

마을은 불'길 속에 잠긴다.

이때 산 속에서 명호가 나타나 마을 사정을 살핀다. 명호는 주의 깊게 사방을 돌아 보고 최 병훈이의 곁으로 지나간다. 최 병훈







이는 깜짝 놀란다.

명호는 《산에서 정보를 기다리고 있소》 한다. 최 병훈이는 《이곳은 위험한 자리니 어서 피하라, 래일 밤 약속된 그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명호는 곧 사라진다.

일제의 앞잡이 백가는 명호가 사라진 쪽으로 급히 좇아 가려고 한다. 당황한 최 병훈이는 백가를 멈춰 세우고 오늘밤 자기 집에서 단오 명절 술 추렴하자고 그에게 권한다. 술에 게걸이든 백가 놈은 어찌나 좋았던지 명호를 따를 생각을 그만둔다. 이 틈에 명호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 나간다.

복순이는 집에서 멀리 불 붙는 쪽을 내다 보고 하염 없이 서 있다. 복순이는 마음 속으로 굳게 맹세한다.

아
검푸른 하늘 우에 반짝이는 저 별아, 안타까운 내 심정 너희들은 알겠지, 아 내 마음 내 모습을 눈여겨 두었다가 우리 님 가슴속에 낱낱이 전해 다오.
울어서 무엇하리 한탄한들 어이하리
어차피 구장 딸로 지어진 신세라
그러나 내 청춘 혁명에 바치리
기어코 혁명에 바치리—

복순이가 이런 맹세를 다지고 있을 때 최 병훈이는 헌병 특무 백가놈과 만주국 순경을 데리고 방 안에 들어선다.

이윽고 술 추렴이 벌어진다. 술에 취한 백가 놈은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군 3천 명이 강을 넘어 건너

오게 된다는 말을 한다. 최 병훈이는 이 말을 귀담아 듣는다.

백가 순경이 술 취해 돌아 간 후 복순이는 아버지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를
딸이라고는 아예 생각 말아요
………………
나의 갈 길은 하나예요
어머니 나의 조국
혁명은 나의 사랑
내 갈 길은 하나예요

복순이는 느껴 울면서 문을 박차고 달음박질로 사라진다.

그후 최 병훈이는 깊은 삼림 속에서 명호를 만난다. 최 병훈이는 자기가 《유격대 토벌군》 3천 대군을 안내하여 협곡 지대로 끌고 들어 갈 것이니 《아리랑》 노래가 들리면 공격을 개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련락 임무를 맡고 명호가 산 언덕을 넘어 설 때 백가놈이 그의 뒤를 따른다. 이 위험한 순간에 최 병훈이는 권총으로 백가 놈을 쏘아 넘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중국 위만군 경찰서에는 일본군을 거느리고 온 일본군 대좌가 《총출동, 총공격이다》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이때 류치장 쪽에서는 혁명가가 힘차게 울려 온다.

피바다 스산한 만주벌 넓은 벌아
묻노니 장엄한 죽음이 얼마냐
혁명의 꽃이 된자 그 얼마나 많으냐
………………



이 노래 소리에 당황한 적들은 잠시 공포 속에 잠긴다. 그러다가 놈들은 애국자들을 모조리 총살해 치우려고 한다.

이 위급한 순간에 최 병훈이가 나타난다. 헌병 대장은 일제에 충실한 모범 구장 최 병훈이를 유격대 길 안내자로 삼으려고 데려 온 것이 였다.

최 병훈이는 일본군 대좌 앞에서 굽실 거리며 이번 싸움에서 주추'돌이 될 것을 맹세한다.

류치장 안에 있던 인민들은 일본군 앞에서 개 짓을 하고 있는 최 병훈이를 보고 격분을 참지 못한다. 그 감금된 사람들 속에는 송 로인도 섞여 있다.

순경들은 이 인민들을 향해서 총 뿌리를 들이 댄다. 이때에 최 병훈이는 헌병 대장에게 저것들이 유격대의 비밀 열'쇠 가졌으니 죽이지 말고 그 비밀을 알아 내는 것이 상책이라 한다. 이 말을 들은 일본군 대좌와 헌병 대장은 최 병훈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들을 류치장 안에 가두어 넣으라고 명령한다.



그리하여 최 병훈이는 《토벌대》의 길 안내자로 떠나게 된다. 마지막 길을 떠나는 최 병훈이는 집에 들려 잠 들고 있는 딸에게 한 장의 편지와 보자기에 싼 권총을 책상 머리에 놓고 떠난다.

흙사재 골짜기에 붉은 피 흘러
한 평생 키워 온 나의 정성 꽃피거니, 귀여운 복순아 마지막 소원이다.
훌륭한 아버지라 한 마디만 불러 다오.

은하수 기울어지고 새벽 닭 울어 옌다.
다시는 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혁명에 몸 바쳐 내 지금 떠나나니
귀여운 나의 딸아 부디 잘 있거라.

그날 저녁 최 병훈이는 일본 군대 3천 대군을 목적지 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는 바위 우에 올라 일군 대좌에게 거짓 유격대 근거지를 설명한다. 일본군 대좌는 자신만만하여 휴식 명령을 내린다.

때를 같이 하여 최 병훈의 최후의 노래인양 《아리랑》의 노래 소리가 산울림 하며 퍼져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에 소동이 났네
나의 노래 밀림에 울려들 가라
판가리 싸움에 힘이 되련다.

이 노래 소리에 따라 빨찌산의 총공격은 개시된다. 이 때 일본 헌병이 헐레벌떡 일인 대좌 앞에 나타나 헌병 특무 백가가 죽으면서 말한 최 병훈의 정체를 밝힌다.

빨찌산의 불의의 습격에 당황 망조한 일인 대좌는 허겁지겁 총 뿌리를 최 병훈에게로 돌린다. 일제의 총탄이 자기 가슴을 뚫고 나갔으나 최 병훈은 힘을 모아 《아리랑》 을 부르다가 마침내는 거인처럼 바위 우에 서서 《조선 독립 만세!》를 웨친다.





빨찌산의 습격에 의하여 일본군은 섬멸 당했다.

이윽고 산정에 올라 선 빨찌산 대장이 쓰러진 최 병훈이를 일으켜 안는다.

최 선생
고귀한 애국지성 승리로 꽃피였소
적들은 모조리 섬멸되였소
우리는 승리하였소, 최 선생!

이 때 부락을 해방 시킨 명호의 부대도 송 로인, 복순 등 부락 사람들과 함께 당도한다. 복순이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자기 심정을 토로한다.

아버지가 주신 그 편지를 받고
유격대와 함께 류치장을 해방시켰어요
명호 동무따라 이 총을 들고
아버지의 딸답게 싸워 이겼소………
훌륭한 나의 아버지
승리한 이 시각에 아버지는 가시는가

최 병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 본다.

백두산, 백두산, 어데서나 보이는 백두산
아 조국이 그립다.

마침내 최 병훈이는 숨을 지는다.

멀리 바라 보이는 백두산은 승리의 상징인양 솟아 저녁 노을 속에 천고의 웅자를 빛낸다.

아 백두산 백두산
승리의 상징이여!
영원한 청춘이여!
백두산!
조국의 형제여!
삼천만 동포여!
승리의 개가를 들으리라.

빨찌산들과 인민들은 승리를 노래하는 가운데 가극의 막이내린다.

그림 림 홍은
오 영복







청년들은 뜨락또르를 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룡궁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금년 중에 100 명의 뜨락또르 운전수가 양성될 것이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한 당의 정당한 정책에 의하여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농촌에는 30,000~35,000 대의 뜨락또르와 25,000~30,000 대의 화물 자동차가 공급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조합에도 3~4년 내에 20 대의 뜨락또르와 40 대의 화물 자동차가 차례지며 금년에는 3 대의 뜨락또르와 2 대의 화물 차동차를 사들이게 된다.

우리 조합 초급 민청 단체 청년들은 이런 사정을 미리 타산했다. 전망이 이렇게 확고한데 어찌 아무 준비 없이 앉아서 뜨락또르 오기만 기다리겠는가? 이런 심정이 우리 조합 청년들 저저마다의 마음에 앞섰던 것이다.

특히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청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들의 열의를 더욱 더 고무하였다.

조합 초급 민청 단체 위원회가 뜨락또르 운전수와 화물 자동차 운전수를 양성하기로 착안한 것은 작년 봄갈이 때부터였다. 우선 초급 민청 단체는 부근 농기계 임경소에서 뜨락또르를 보내주는 조건을 타산하여 먼저 뜨락또르 운전수를 양성할 것을 계획하고 제대군인 리 용섭 동무를 비롯한 승 만섭, 염 길목 동무 등 10 명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뜨락또르 운전수들을 돕기 위한 조절수로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뜨락또르 운전 기술 습득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막상 배우자고 보니 여간 힘들지 않았다.

우선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경소의 뜨락또르인만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는 임경소에 돌아 가야 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짬이란 짧은 휴식 시간 밖에는 없었다. 물론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배웠다. 청년들의 열성에 감동된 운전수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휴식 시간을 주리면서 성의껏 배워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조합 초급 민청 단체는 임경소 민청 단체와 협의하여 휴일을 리용하여 운전수들을 초빙하여 리론 실무 강습도 조직했고 한편 하루 일을 마친 다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뜨락또르가 임경소에 돌아 가지 않고 조합에서 묵게 함으로써 그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노력으로 하여 불과 몇달동안에 뜨락또르를 능히 운전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분해 작업과 수리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지난 가을 추경이 한창 바쁘던 시기 승 만섭 동무의 운전수가 갑짜기 병으로 입원하게 되였다. 이때 승 만섭 동무는 운전수를 대신하여 계획한 기일 보다 훨씬 앞당겨 훌륭히 추경을 끝냈다.

지난 번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 문헌을 연구하면서 우리 조합 초급 민청 단체 민청원들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뜨락또르 및 화물 자동차의 운전수, 조절수, 수리공 등 기술 기능 인재의 양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는 관리 위원회와 토의하여 20 명의 청년들을 뜨락또르 운전수 양성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미 운전수의 기능을 습득한 10 명의 민청원들을 핵심으로 뜨락또르 운전 크루쇼크를 조직하였는 데 여기에는 근 40 명의 청년들이 망라되여 있다. 이미 이들의 대부분은 이웃 임경소로 다니면서 초보적인 운전 기술을 배우고 지금은 벌써 분해 수리하는 것까지 배우고 있다.

우리 조합 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금년 봄에 2 대의 화물 자동차를 사들일 조합의 계획에 따라 뜨락또르 운전 크루쇼크에서 화물 자동차 운전수를 양성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화물 자동차 운전은 좀 더 복잡한 기계를 다루게 되느니만큼 이미 뜨락또르 운전을 할 수 있는 동무들을 여기에 인입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머지 않아 훌륭한 녀성 화물 자동차 운전수로 자랄 장 복득 동무도 포함되여 있다. 그는 옛날부터 평생을 등'짐지기와 머리에 이는 중로동으로 늙어온 농촌 아낙네들을 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 싶은 간절한 념원을 안고 남달리 열성을 기울여 학습하고 있다.

4월에 뜨락또르 운전수 양성소에 공부하러 간 20 명의 청년 운전수들이 돌아오면 이들이 각각 한 명씩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 운전수를 양성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년 가을에 가서는 100 명의 운전수가 긴등'벌 우리 룡궁 협동 조합에서 자라나게 된다.

황주군 룡궁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안 성 균



우리만 할 일이 아닌데…



청년 다수확 시험포전의 일지

《평북도 운전군 운하리 농업 협동 조합
《청년 다수확 시험포전 책임자 리 종수》

9일 25월

오늘 초급 민청 단체 총회에서 우리는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의 면적을 3,300평으로 하고 생산 목표량을 600 톤으로 결정하였다.

600 톤! 이것은 굉장한 수'자이다!

벼 600 톤이면 1,3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들의 1년간 식량을 보장하고도 남는다.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년 다수확 시험 분조》도 조직하였다. 분조는 내가 책임지고 농사에 경험있는 청년들과 기수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응시 준비를 하고 있는 동무들로서 7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조를 구성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시험 포전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였다.



분조는 리 민청 위원회의 지도하에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5일에 한 번씩 총화하며 시험 포전의 운영 정형을 수시로 청년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

9월 28일

나는 분조원들에게 총회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책을 다시금 해설하였다.

한 시험 포전에서 두 가지의 집약적 농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시험 포전 중 3,000평의 논에 심경, 밀식, 다량 시비 방법을 적용하여 정당 500 톤을 생산하며 다른 하나는 나머지 300평의 논에 이런 방법과 동시에 2모작을 적용하여 정당 1,000 톤을 생산 하자는 것이다.

한 시험 포전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게 된 것은 청년들에게 선진 영농 기술을 다각적으로 배워주며 집약적 농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다.

시험 포전 중 3,000평에서 정당 500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벼 종자는 중생 은방주로 하되 벼'모를 1평에 1,600포기 심는다. 그리하여 초기 한 포기에 3대씩 심어 그중 한 대가 8아지씩 퍼지면 24대로 된다. 그러면 1평에 3만 8천 400 본의 벼'대가 서게 된다. 벼 1대에 200알씩 달릴 것을 예산하면 한 평에서 768만 개의 벼알이 나온다. 천립당 중량 25그람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평당 192키로그람 정당 576 톤의 벼가 생산되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밀식한 벼'모의 육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경을 1메터 이상 연 5회하며 자급 비료는 토양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정당 구비 600 톤, 초목회 5 톤 객토 5,000 톤, 도합 5,605 톤을 시비한다. 화학 비료는 류안 1 톤, 과린석 1 톤을 사용한다.



다음 300평의 논에서 정당 평균 1,000 톤 생산을 계획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집약적 농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2모작을 실시한다. 2모작에 필요한 종자는 조숙종인 《련지도》를 마련하고 일찌기 이앙한다. 3월 1일에 가서 락종하고 4월 1일에 모내기를 하며, 7월 7일 경에 가서 추수한다.

후작은 5월 20일 경 되여 그 린접에 륙상모를 부엇다가 모내기를 7월 8일에, 추수는 10월 10일에 한다.

2모작에서 밀식은 맨 처음심는 벼'모의 평당 주수를 9,000주로 한다. 1주가 4대의 아지를 치면 3만 6천대로 된다. 한 대의 벼 알수를 300알씩 잡으면 1천 80만 알이 생산되게 된다. 이것을 천립당 중량 25그람으로 계산하면 평당 270 키로그람, 정당 810 톤이 생산된다. 후작의 평당 주는 먼저한 평당 주수보다 적게 2,250주로 한다. 1주 평균 4대씩 심어 그 중 한대가 두대씩 아지를 칠것을 예견하면 1평에 1만 8천 본의 벼'대가 들어 서게 된다. 1대에 150알씩 달리면 1평에서 27만 개의 벼 알이 나온다. 이것을 중량 25그람으로 계산하면 평당 67키로그람, 정당 200 톤이 생산되게 된다. 이리하여 300평의 논에서 정당 1,000 톤을 생산할 수 있다. 2 모작의 처음 시비량은 3,000평에서 정당 500 톤을 생산하겠다는 시비량과 동일하며 후작할 때의 시비량이 좀 다르다. 즉 구비는 정당 300 톤, 초목회는 1 톤 반, 객토 600 톤, 화학 비료는 류안 400키로그람, 과린석 600키로그람을 시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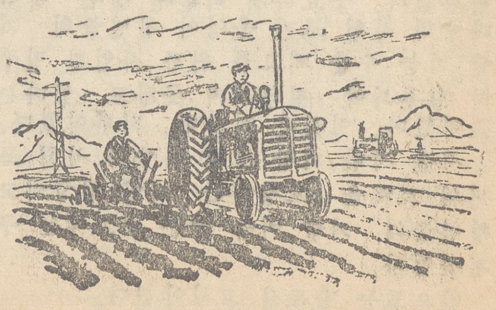
10월 10일

분조에서는 작업 장소의 정형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첫 심경을 실시했다.

심경 작업에는 300여 명의 민청원들이 동원되였다. 작업은 주로 야간을 리용하여 진행하였다. 시험 포전 운영을 기본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 할 데 대한 제 1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한 병욱 동무의 제기에 의하여 민청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지난 수일 사이에 우리들이 해 놓은 작업에서의 소기계화를 총화해 보았다.

민청원들은 따찌까를 하나씩 만들어 퇴비 운반 작업을 진행하여 1,000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했다. 또한 리 민청 위원회에서는 부근의 채석 사업소 로동 청년들과 련대적 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그들로부터 우차에 넣을 베아링구를 보장 받으므로서 운반 작업에서 수백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청년들은 랭상모판용 창문 종이 기름바르기 기계도 도입 적용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다.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청년들의 이와 같은 투쟁으로 긴장 되였던 로력 문제는 적지 않게 해결되였고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은 많은 로력을 들이지 않고 운영하게 되였다.



11월 10일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 1차 심경 작업을 실시한 후 모판 자리도 정리하였다. 약 300 평의 모판 자리를 추경하고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벼'짚으로 랭상 나래 12,500 메터를 엮어서 덮었다.

시험 분조는 또한 채종 작업반과의 련계 밑에 시험 포전에 필요한 벼 종자 《전지도》 120 키로그람과 《중생 은방주》 420 키로그람을 장만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 소요되는 2,250여 개의 문짝도 준비 완료 했다.

11월 23일

자급 비료 증산 운동은 일상적으로 전개되였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힘에 의하여 달성된 량은 다음과 같다.

객토 5천 톤, 구비 200 톤, 초목회 5 톤. 계획 대로 하자면 아직 구비를 400 톤 더 생산해야 한다. 나는 리 민청 위원회와의 련계 밑에 시험 포전에 필요한 자급 비료 증산 투쟁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한편 청년들의 힘으로 소형 화학 비료 공장을 건설하였다. 화학 비료 공장에서는 매일 수백키로그람의 린 비료와 가리 비료가 생산되였다.

12월 16일

총회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7차 전원 회의 결정 《농업의 일대 생산적 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의 실천을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토론자들은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 운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련의 결함들을 비판했다. 중요하게 비판된 것은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 운영이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정당한 비판이였다.

사실 지난 기간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의 로력을 보장하는 데만 급급하고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는 무관심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고쳐야겠다.

12월 20일

리 민청 위원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비판을 접수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책을 취하여 해결하였다.

하나는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여 일하는 청년들을 청년 군중 속에 파견하여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시험 포전의 운영 정형과 달성한 기술적 성과들을 알리여 주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리 내에 조직된 12 개의 농산 기술 크루쇼크에서의 일체 실습을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 와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 요며칠새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전에 비해 훨씬 눈에 띠우게 높아 갔다.

12월 25일

력사적인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를 앞두고 우리 조합원 청년들의 열의는 높아 졌다. 그들은 대회를 알곡 증산을 위한 자급 비료 증산 투쟁으로 맞이했다. 청년들은 자급 비료 증산 돌격대를 조직하고 대회를 앞둔 20일 간의 기간에 6만 톤의 객토를 더 증산하였으며 11월 23일 현재로 부족되였던 400 톤의 구비도 완전히 확보하였다.

1월 15일

조합의 청년들은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빈틈 없는 영농 준비에 궐기하였다. 청년들은 조합의 기본 작업에 참가하면서 밤을 리용하여 이미 준비해 놓은 자급 비료 중에서 400여 톤을 청년 다수확 시험 포전에 운반하였다.

작업은 날로 활기를 띠고 진척되여 나가고 있다.





조국의 방방 곡곡에서 은금 보화를 찾아내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는 금속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하 보물들을 적극 찾아내는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지하 자원을 탐사하는 일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나라에서 유명한 광산들의 발견 력사를 보면 농민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던가 또는 로동자들이 지하 공사를 할 때에 이상한 돌을 발견한데서부터 시작된 곳이 많다.

그러면 지하 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 낼 수 있는가?

× ×

모든 광석은 각각 무게가 다르다. 례를 들어 석고, 흑연 등은 가볍고(비중 2.5도) 장석, 석영 등은 무게가 보통 중간쯤이며(비중 2.5도 내지 4도) 금, 은, 동, 중석, 철, 연과 같은 광석들은 보통 다른 돌에 비하여 무겁다.(비중 4도 이상) 일반적으로 금속 광물들은 대부분 무거운 광물에 속하므로 무거운 광물들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또 광석들은 제가끔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다. 례컨대 금은 황금색, 동의 광석 광물인 황동광은 황색, 공작석은 항상 록색, 탐동광은 청색, 흑연은 암흑색, 중정석은 담백색, 회수연광은 연흑색이다.

광석의 모양은 가지 각색이다. 광석중에는 수정과 같이 납작한 면과 모를 가진 것도 있고 적철광과 운모(돌비늘)와 같이 얇은 비늘처럼 생긴 것도 있다. 또한 자연금은 알맹이 모양으로 생겼으며 철망간 중석은 짧은 기둥 같이 생겼다.

또 광석은 조흔색으로써 알아낸다. 조흔색이라는 것은 광석을 가루로 만들었을 때의 색이다. 광석을 그냥 색으로 분간하기 곤난할 때에는 가루로 만들어 보며 독특한 다른 색을 나타낸다. 같은 철광물인 자철광과 적철광은 덩어리로는 색이 서로 비슷하나 조흔색으로 보면 자철광은 검은 색이고 적철광은 진한 적색이다. 또 황철광(류안 비료 원료)과 황동광은 덩어리일 때에는 다 같이 황색이다. 조흔색으로 보면 황철광은 흑갈색이고 황동광은 흑록색이다.

또한 광물은 각각 경도가 다르다. 경도의 표준으로 되는 광석을 보면 활석은 1도, 석고는 2도, 방해석은 3도, 형석은 4도, 린회석은 5도, 장석은 6도, 석영은 7도이다. 7도 이상의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광석은 7도 이하의 경도를 가지고 있다. 광석의 경도를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어떤 광물로써 종이에 금을 그어도 종이가 째여지지 않으면 1도, 광석에 손톱으로 금을 그을 수 있으면 대략 2도, 강철로 만든 칼로써 광석에 금을 쉽게 그을 수 있으면 3도, 칼로써 약간 힘을 들여 금을 그을 수 있으면 4도, 칼로써 힘들게 금을 그을 수 있으면 대략 5도, 광물로써 유리에 금을 그을 수 있으면 대략 6도이다.

다음으로 광석들은 냄새로써도 알아 낸다. 어떤 광물은 습기가 있을 때, 마찰할 때, 마치로 두드릴 때, 불에 태울 때에 각각 독특한 냄새를 낸다. 례를 들어 고경토에 물을 무치면 흙내가 나며 황철광을 태우던가 마치로 세게 때리면 류황(류황은 잘 탄다) 냄새가 나며 류비 철광(비소 원료)을 마치로써 불꽃이 튀게 치면 마늘 냄새가 난다.

이밖에도 광물의 맛, 광택(빛'갈) 벽개(거울과 같이 광택이 있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쪼개지는 성질) 단구(벽개아닌 방향으로 쪼개지는 성질) 연소성(불타는 성질) 탄광(구부려졌다가 다시 펴지는 성질) 부스러지는 성질 점착성, 연성, 자기 성질, 전기 성질, 흡수성(습기를 빨아 들이는 성질) 및 기타 등에 의하여서도 광석을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다.

이와 함께 광석이 존재하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암석이 잘 나타나 있는 산'골짜기와 절벽과 강'가의 자갈 돌들을 잘 관찰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상 잔재에 포화를 퍼부으라!

오작의 원인

나는 《청년 생활》 1호에 실린 룡대 수산 사업소 가공 직장 일부 포장공들의 무책임한 사업이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그들의 사상 관점에 있다고 한 배 형수 동무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장에서 있은 사실도 바로 이것을 확증하여 준다. 얼마 전까지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이 낮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재봉공들과 심지어는 일부 행정 지도 일'군들도 《갓 들어온 처녀들이니까!》, 《기능이 낮은 데다 기계까지 낡았는데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질이 나쁜 제품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바느질의 상침이 곱지 않은 것, 옷 소매가 삐뚤게 달린 것, 천 색갈이 같지 않은 것, 재단이 잘못되여 규격이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다. 문제는 응당 지켜져야 할 기술 규정도, 작업 규률도 지키지 않고 《대구 박고 베여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바느질이 곱게 될 리 없고 옷 소매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

사업에서 규률을 지키지 않는 것, 기술 규정을 위반하는 것 등은 곧 자본주의 사상 잔재이다. 그때에는 물건을 좋게 만들어 내면 그것은 자본가들에게만 좋았다. 그런 데로부터 당시 로동자들은 사업에서 기술 규정을 지키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고용살이 사업 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우리 자신들의 일이다.

평양시 지방 산업 제 3 피복 공장
재봉공 김 윤 녀

김 선찬 동무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얼마 전에 평양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평양 역전에 있는 류경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일이 있다. 식권을 사고 30분은 실히 기다렸다. 그런데 청한 식사는 오지 않고 기차 시간은 박두했다. 초조해진 나는 한 접대원에게 빨리 줄 것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는 《30분을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리라요》하고는 가버렸다. 한 10분쯤 지나서 다시 그에게 《빨리 갖다 주지 않으면 기차 시간을 놓칠텐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딱한 사정을 말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는 《기다리라는데 왜 성화예요, 정 그렇다면 식권을 도루 물리고 돌아 가시라요》하고 톡 쏘아댔다.

그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김 선찬 동무였다. 나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특히 민주 수도 평양에서 일하는 사회 급양 부문 일'군으로서 어찌 이렇게 손님들에게 불손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청년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동무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보다 더 봉사성을 높일 것을 부탁한다.

허천 청년 광산
김 영 남

신혼 부부의 허망한 《계획》

함흥 철도 건설 트레스트 단천 사업소 1공구 허 순자 동무와 김 지홍 동무는 지난해 11월 3일 결혼하였다. 공구에서 일 잘하고 착실하기로 이름 난 두 동무가 결합되여 가정을 이룬 데 대하여 모든 동무들은 기뻐했고 기대가 컸다. 일에도 더 열성을 내고 모든 동무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믿는 나무 너머진다》는 속담은 이들을 위해 지어 놓은 것 같다. 허 순자 동무는 결혼한 그날부터 2주일간이나 무단 결근하였다. 그는 신혼 생활의 《달콤한 꿈》에 자기에게 부과된 국가적 생산 계획도, 민청 생활도 깡그리 잊어 버렸다.

직장에 나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착실하다고 소문 난 그의 일'손이 말할 수 없이 거칠어졌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머리에 가득찬 그의 일'손이 재빠를 리 없다. 그는 당장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아 《편하고 알뜰한》 살림을 꾸리고 싶었으나 《정복을 타 입고 사직하라》는 남편의 《간곡한 당부》가 있기 때문에 정복 내주기를 기다리면서 일에 열성을 내지 않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안'사람》의 행복을 누리려는 허 순자 동무의 그릇된 견해를 고쳐 주고 그를 안착시키며 도와줄 대신 그를 추동하고 있는 남편된 김 지홍 동무의 행동은 일은 싫으면서도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잘 살아 보려는 낡은 사상의 표현이다.

지금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공화국의 모든 녀성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생산 직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한 직장에서 결합된 남녀 청년 부부들이 서로 도우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기에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김 지홍 동무와 허 순자 동무는 낡은 사상이 빚어낸 허망한 《계획》을 불살라 버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벅찬 현실에 더 확고히 뛰여 들어야 한다.

함흥 철도 건설 트레스트
통신원 장 상 구



무단 결근의 《명수》



%수만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신발을 사들고 집에 와 보니 오작이구나.

《열성분자》로 가장한 간첩

직공장 실을 나온 브리가다장 김 창선 동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한편 직공장의 말대로 자기의 행동에 잘못이나 있지 않았는가 하여 방금 전에 있은 일을 되씹어 생각해 보았다.

이날 아침 큼푸렛샤 동력 공사 때 있은 일이였다. 공사를 기한 전에 끝마친 김 창선 브리가다원들은 시운전을 위한 부분품 검사 작업에 바빴다. 이때 작업 현장에 나타난 직공장 최 종환은 다짜고짜로 시운전 할 것을 강요했다. 《아니, 직공장 동무! 아직 검사도 끝나지 않았는데…》하고 브리가다장 김 창선 동무는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순간 최 종환의 얼굴 빛이 갑자기 달라지더니 《아니, 그래 동무들은 뭘 했소, 아직 검사도 못하고… 할 수 없소, 지도부에 벌써 련락이 되였으니 그대로라도 시운전을 할 수 밖에…》 이리하여 그는 직공장의 《권위》로써 창선 동무의 정당한 제의를 묵살하고 시운전에 바삐 서둘렀다. 이윽고 공장 지배인과 당 위원장을 비롯한 공장 지도부 성원들이 시운전을 참관하려 현장에 나왔다. 일은 난처하게 되였다.

검사를 끝맞기 전에 시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일뿐더러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아무리해도 이대로 시운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브리가다장 김 창선 동무는 《직공장 동무, 검사를 하기 전에 시운전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사고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다시 한 번 제기했다. 그제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된 공장 당 위원장의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시운전을 중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자 직공장은 김 창선 동무를 자기 사무실에 불러다가 《직공장의 위신을 공장 간부들 앞에서 손상 시켰다》고 한바탕 톡톡히 《비판》하는 것이였다.

아무리 오늘 자기가 한 일을 더듬어 보아도 잘못된 것은 있는상 싶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는 검사를 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자고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것은 초보적인 상식으로 되여 있는 일인데…) 한 번 단단히 알아 봐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직공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 종환은 1956년 인민 군대에서 제대되였다는 《제대증》을 가지고 전기 직장에 찾아 왔다. 그는 전공으로 배치되였다. 그 후 그는 일에서 아주 열성적이였다. 그래서 그는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나중에는 직공장에까지 등용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창선 동무에게는 어쩐지 그가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최 종환의 관료주의는 날을 따라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을 시작한 초 시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는 기간 단축 이라는 미명하에 로동자들을 무리하게 내 몰군 하므로써 때때로 오작 시공을 내였다.

한편 그는 자기 집에서 자주 술상을 벌려 놓았는 데 거기에서는 매번 사업에서 불평을 부리고 태만하는 작자들이 모여 앉군 하였다. 이런 좌석에서 벌어지는 담화는 대체로 행정과 당 간부들에 대한 중상과 비방이였다.

이러던 중 7월에 종합 변전소 변압기 수리 작업이 진행되였다. 이 공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공사였다. 이 작업은 날씨에 대한 정확한 타산이 있어야 했다. 왜냐 하면 흐린 날씨에 변압기를 뜯어 4시간내로 고치지 않으면 그 변압기가 못쓰게 되는 때문이다. 작업에 착수하던 날 아침에는 해가 났다. 그러나 라지오에서는 인차 흐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일에 착수하기 전 최 종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다음 날로 미룰 것을 제의했다. 그런데 그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흐리긴 뭘 흐려…》라고 고집하여 끝내 변압기를 뜯게 하였다.

작업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작업에 착수한데로부터 기계가 기름 땅크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와이야줄이 끊어져 육중한 기계가 밑으로 떨어졌다. 라지오에서 예보한대로 날씨마저 갑자기 흐리기 시작하여 공사는 예상외로 난공사로 되였다. 그러나 브리가다원들의 로력에 의하여 작업은 순조롭게 되여 땅크에 기름을 채우는 일만이 남았다.

그런데 김 창선 동무는 최 종환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였다. 즉 변압기 후란치 구멍에 길이 30 센치메터나 되는 도선을 열심히 집어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태연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최 종환은 약간 당황하는듯 하더니 《기름이 얼마나 찼는가 보려구 그래》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였다.

《기름 측정이야 밑에 설치되여 있는 유리관으로 해도 될텐데, 애써 그 구멍으로 할 필요야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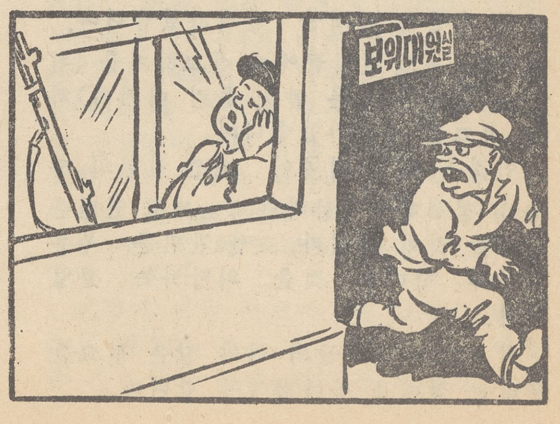
사실 기름은 차서 그 구멍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도선을 뽑느라고 《애》를 썼다. 그러나 도선은 가닥가닥 끊어져 몇 오래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속에 들어 백혔다. 할 수 없다는 듯이 상을 찡그리며 일어난 그는 《내가 대책을 강구 할테니 아무에게도 말 하지마오》라고 단단히 당부해 놓고 가 버렸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창선 동무의 가슴에 섬찍 무엇인가 예고하듯 안겨왔다. (만일 저 쇠'줄이 안으로 들어가 철심이나 케스와 마주치면 변압기는 폭발될 것이고 공장이 멎게 될터인데 빨리 손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는 나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 하지 말라구 하는가?) 순간 그의 머리에는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민청 학습회 강사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러구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의 공장을 해치려는 사소한 행동과도 묵과해선 안된다. 한시 바삐 이 문제를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해야 된다. 우리의 공장을 원쑤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보위 하는 것은 민청원인 나의 의무이다) 그 길로 그는 공장 민청을 찾아가서 전후 사연을 이야기 했다. 그리하여 변압기는 구출되였고 최 종환의 정체도 들어 났다.

최 종환은 지난 전쟁 시기 정주군에서 《치안대장》을 하면서 수십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다. 적들이 패주할 때 월남한 이자는 미 정탐 기관의 밀정으로 포로 수용소에 잠입하여 18명의 애국자를 학살 하였다. 그러다가 포로 교환 시에는 《포로》로 가장하여 북반부에 기여 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곳 직장 청년들은 지난 기간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제도와 작업 질서를 위반하는 사소한 현상과도 타협함이 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원쑤들의 암해 책동으로부터 공장을 튼튼히 보위할 결의를 새로이 하고 있다.

본사 기자 최 희영



미제의 조선 침략과 종교

로 재 선

계급 사회에서 종교는 근로 대중을 착취하는 착취 계급의 정신적 도구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도구로 리용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종교를 리용하여 그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인민들 간의 반목과 알륵을 조성하여 민족적 불화를 선동하며 침략과 노예화를 정당화한다.

우리는 종교가 어떻게 침략자의 도구로 리용되여 왔는가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종교를 리용한 자취를 통해서 더듬어 보기로 하자.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은 과거에 조선에 소위 종교의 미명하에서 례배당을 건설하고 종교를 자기의 먼 장래의 침략 정책에 리용하려고 40년 간 준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조선에 례배당을 건설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듯이 종교의 간판을 가지고 조선에 대한 음흉한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인민들에게 설교하기를 〈왼뺨을 치거든 오른 뺨을 돌려 대거라〉하는 설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일 미국이 조선 인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조선 인민은 반항할 것이 아니라 조선 인민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선 애국자들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한 개를 치거던 두 개를 때리라〉고 하였으며 또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놈들이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였던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벌써 한 세기전에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놈들이 직접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1866년부터인데 벌써 그 때부터 종교—기독교의 전파 사업이 시작되였다. 우리들은 1866년에 있은 《샤만호》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샤만호》는 평양 지방의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조선에 침입하여 왔다. 이때 미국선을 타고 온 선교사 토마스란자는 대동강 하류 연안의 각지에서 기독교를 전도(傳道)하려고 성경책들을 뿌려 던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다.

그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기독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심을 바로 잡고 사람들의 나쁜 습성을 고쳐주고 무릇 사람을 어질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놈들의 말과 행동은 같지 않았다. 그들은 평양 주변에서 부녀자를 릉욕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총포로써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일삼았다.

이 사건은 미국놈들이 전파하는 종교가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차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해방 전 미제의 종교 선전에 중독된 일부 사람들은 인민의 손으로 처단된 토마스를 고상한 《순교자(殉敎者)》로 받들어 모시고 평양에는 《토마스 기념관》까지 세워 그를 찬송하는 어리석은 짓까지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1871년에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보려고 망상하면서 극동 함대를 끌고 와서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 미국놈들은 조선의 일부 기독교도들을 침략의 앞잡이로 리용하였다. 미국 함대가 강화도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놈들은 조선 기독교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국내의 정치,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그들을 통하여 국내에 요언을 전파시키고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투지를 동요시키려고 하였다. 조국을 반역하는 길에 들어선 일부 기독교도들은 무력 침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조선 군대는 로쇠한 병정 수천명에 불과하다》는 허위적 정보를 제공하는 매국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1882년 조선과 서양과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 미 조약을 체결한 후 미국은 조선 침략에 대대적으로 종교를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885년 4월부터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위시한 선교사들을 조선에 들여 보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공공연한 기독교 전파 사업이 시작되였다.

조선에 들어 온 미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에게 매수되여 돈벌이를 위해서 떠난 협잡'군과 모리배들이였다.

그들은 대단히 열심히 전도 사업을 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신자가 증가되면 그만큼 전도 비용이 많이 나와 자기의 호주머니가 불러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 인민을 착취하였다. 그들은 땅을 사서 소작을 주고 공장과 광산을 사서 로동자들을 착취하고 과수원을 경영하고 심지어는 고리 대금업까지 하여 조선 인민의 피'땀을 짜냈다.

미국 자본가들은 돈으로 매수한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침략의 토대를 닦게 하였다. 놈들은 말하기를 《일본이 조선의 령토를 점령한다면 우리는 조선 사람의 심장을 점령할 것이다》고 하면서 조선 사람을 모두 미국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려고 덤벼 들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미국 선교사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미국을 선전하였다. 그들은 《미국은 하느님의 나라니 미국을 하느님처럼 믿으라》고 입만 벌리면 지껄여 댔다. 미국놈들이 종교를 선전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믿으라고 한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을 믿게 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식 종교 선전에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간 것은 조선의 무능한 통치배들이였다. 당시 보수적인 정치가의 대표적 인물이였던 민 영익(閔泳翊)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가 1884년 갑신(甲申) 정변에서 봉변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후 미국 선교사에게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 숭미 사상을 갖게 되였다고 한다. 통치 계급들 중에서도 이러한 숭미주의에 선참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조선 왕 고종(高宗)이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한 나라의 왕이 마치 이웃집의 한 늙으니나 되는 것처럼 왕실을 드나들면서 미국은 조선을 진정으로 동정해 주는 《벗》이라고 선전하고 간이라도 뽑아 먹일 듯하게 간사한 아양을 떨었다. 이에 속아 넘어간 고종은 미국 사람들을 《친우》로 믿게 되였다. 고종은 특히 1895년에 일본 침략자들이 민비(閔妃)를 살해한 후부터는 불안에 싸여 신하들까지도 믿지 못하여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를 밤마다 결방에 불러다 재우고 식사도 선교사의 집에서 날라다 먹는 정도로 미국 선교사들만 믿게 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왕실과 정부 고관의 신임을 얻은 후 자기들의 검은 배'심을 채우기 시작

하였던 것이다. 왕의 신임에 의해서 조선 정부에 고문이란 명칭으로 요직에 들어 앉은 미국인들은 조선이 침략자들한테 망해 버리도록 유도해 나갔으며 정부로부터는 수 많은 경제적 리권(利權)을 강탈하여 미국 자본가들의 리윤을 보장하여 주었다. 고종과 그의 신하들이 미국놈들에게 속아서 미국 선교사들이 말하는 미국의 《원조》만 태산같이 믿고 어물어물하고 있는 동안의 조선의 중요한 경제는 미국놈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조선은 독립마저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놈들의 종교가 이 얼마나 무서운 침략의 마수이며 도구인가! 그것은 대포나 총칼보다도 더욱 악랄한 침략의 무기인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은 통치배들을 마수에 틀어 쥐는 한편 인민들도 숭미주의의 도가니 속에 녹여 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놈들은 조선에다 교회나 례배당을 짓고 또 교회에 부속된 학교와 병원, 기독교 청년회 등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놈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므로서 마치 미국이 조선을 문화적으로 개화시키고 도와 주려고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조선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은 아니였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1923년 대구 계생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교수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동맹휴학을 하였을 때 그 학교의 미국인 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생들이 성경 과목을 없애 달라는 요구를 우리는 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에 와서 이와 같이 학교를 세운 것은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요, 교육은 둘째외다. 만약 교육에 힘쓰려 온것 같으면 미국에서 일하지 무엇하려 여기까지 오겠소. 퇴학하고 싶은 학생은 퇴학하시오》라고 하였다. 놈들 자신이 고백한 이 한 가지 말에 의해서 보더라도 미국놈들은 순전히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 선교사들은 장차 기회가 오면 조선에서 일본을 몰아 내고 미국의 지배권을 수립해 보려고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을 말살하고 미국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계속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미국놈들은 조선 인민의 식민지 노예생활은 《하느님이 주신 생활》이기 때문에 참고 기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 제도를 찬양하고 식민제도는 영원한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로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죄니 하느님께 빌고 부지런히 일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선전하여 대중 속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 보려고 하였다.

동시에 미국 선교사들은 숭미 사상을 배양하기 위하여 미국은 《정의》의 나라이며 미국 사람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박애》와 《평등》에 기초한 고상한 마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끝마다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국놈들이 말하는 《박애》와《평등》이 과연 진정한 인도주의에서 나온 것이였던가? 그렇지 않다. 입으로 그것을 떠드는 미국놈들이 실지 행동에서 어떠하였는가를 한두 가지 실례로서 보기로 하자.

조선에 와 있는 미국놈들은 조선 로동자들을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극악 무도한 짓까지 감행하였다. 놈들은 조선 로동자들에게 미국에 가서 몇 해만 일하면 생전 부자가 된다고 사탕 발림의 간드라진 목소리로 그들을 꾀여 내였다. 이에 속아서 살길 없이 헤매던 적지 않은 조선 로동자들이 《이민(移民)로동자》로 가게 되였다. 그런데 조선 로동자들을 태운 상선이 조선 항구를 떠나자 미국놈들은 로동자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이마에 인두로 노예의 락인을 찍었다. 조선 로동자들은 하와이나 캘포르니아의 부두에 실려 가서 미국 노예 상인과 농장주 들에게 불과 몇 딸라에 매매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 당하는 대우에 대하여 미국 정부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에 대한 미국인의 학대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다. 그들은 리유없이 우리들을 전염병의 발원체(發源体)라고 하여 우리들이 상륙한 부두를 포위하고 부두에 오르면 묻지도 않고 마구'간에 집어 넣어 여기에서 침식을 하게 하고 내외의 련락을 단절하여 죄인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한다. 우리들 중에는 이 모욕을 참지 못하여 목을 매여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허다하게 생기게 되였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인도주의》이며 《박애》인 것이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자. 1925년에 평남 순안군에 있는 미국 선교사 한 놈은 소학교 1학년 학생 김 명섭(12세)이 그가 경영하는 과수원 근방을 걸어 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이놈아 너는 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치려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하면서 학생을 도적놈으로 몰아 구타하였다. 그것으로 부족하여 그놈은 소년의 이마에 초산은수(硝酸銀水)로 《도적놈》이란 세 글'자를 써 놓고 돌려 보냈다. 이와 같은 야만적인 행동이 미국놈들이 늘상 선전하는 《박애》의 발현이였다.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놈들이 우리 조선 원산 수도원(修道院)에서 감행한 행동은 종교의 정체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실례로 된다. 그들은 소박한 신자들을 기만하는 수단으로서 례배당 속에 특별 마이크 장치를 하고 그곳에 모인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참회하는 말을 뒤'방에서 들었다. 그리고 선교사는 《당신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일일이 안다》고 하면서 그것은 하느님 덕분이라고 신자들을 기만하였다.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믿는 미국은 만능하다》고 유혹하여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수다한 부녀자들을 릉욕하였다. 이 뿐이 아니다.

《거룩》하게 높이 솟은 십자가의 탑 속에는 간첩 자료를 자기 본국에 알리는 무전기가 장치되여 있었고 《수도원》이자 곧 간첩의 소굴이였던 것이다. 종교의 껍질을 뒤집어 쓴 침략의 도구의 정체는 바로 이러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는 미국식 종교 선전의 위선을 똑바로 보고 그를 반대하여 싸웠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놈들은 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성경책을 편다》는 속담 말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맹목적 숭미주의자들을 양성해 낼 수 있었다. 즉 오늘날 남조선의 매국적 친미 집단을 이루고 있는 리 승만 도당들과 민족 해방 투쟁을 미제에게 팔아 먹은 간첩 주구배 박 헌영 도당을 들 수 있다. 조선 인민의 만고역적 리 승만은 미국 선교사 아팬셀라에게서 숭미 교육을 받고 그 후 미국에 가서 선교사놈들 한테서 본격적인 숭미 노예 사상을 배워 가지고 극악한 매국노로 되였다. 박 헌영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의 영향으로 숭미 사상을 품게 되였고 또 그로부터 간첩 임무를 받아 가지고 반역자로 전락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들을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길들임에 있어서 모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미제는 이와 같이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하여 우리 나라를 예속시켜 보려는 침략 음모를 음흉하게 준비하여 왔던 것이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남조선에서 종교를 리용하여 숭미 사상과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전파하기에 발광하고 있으며 악질 종교인들을 자기들의 침략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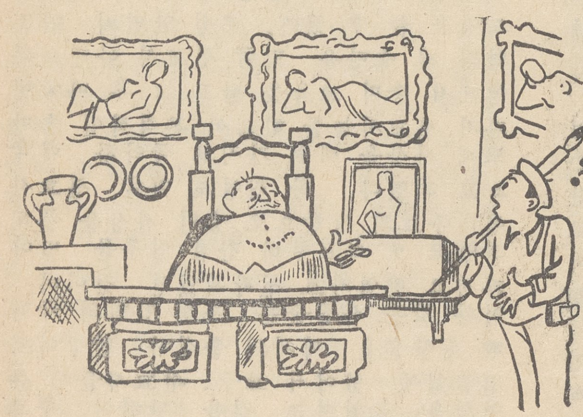
청년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서 종교가 어떻게 리용되였는가를 통하여 종교의 계급적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일체 낡은 사상과 함께 종교적 편견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수의 세계 려행
미국에서

(전호에서 계속)

나는 월가로 갔다. 뉴욕 중앙에 있는 월가는 실제적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백만 장자들 모르간, 록펠러, 듀폰 등의 회사들과 은행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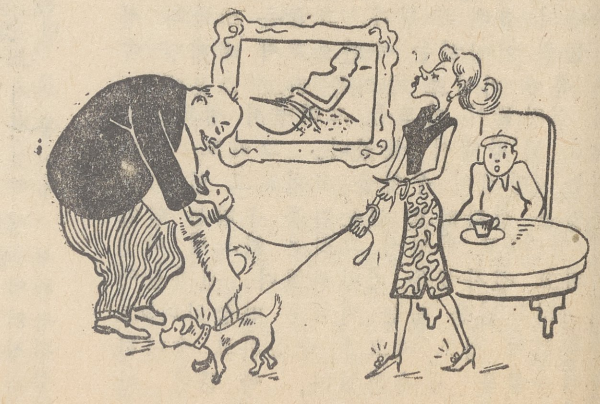


꽉 들어차 있다.

나는 대자본가 록펠러의 집에 찾아 갔다. 응접실에 안내된 나는 얼굴이 화끈해 짐을 느꼈다. 그의 응접실 온 벽마다에는 추잡한 라체화가 질서 없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밑에 커다랗게 록펠러의 싸인과 《창작》 년월일이 밝혀 있었다. 이윽하여 록펠러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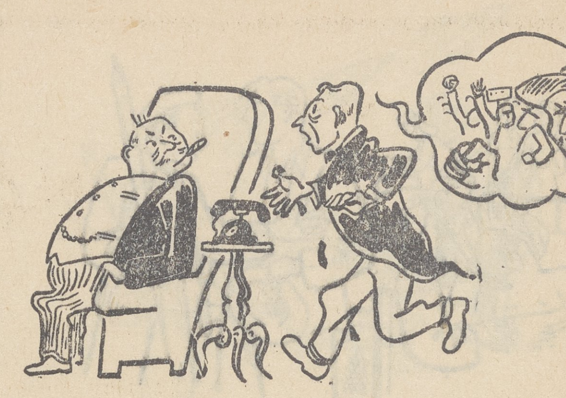
《세상에서 당신 같은 억만 장자는 없을게 아니요. 그래 얼마나 돈을 긁어 모았소?》하고 나는 물었다. 록펠러는 내 질문에 만족했는지 하마처럼 입을 벌리고 웃더니 《물려 받은 재산을 많이는 늘쿠지 못했소》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당신은 그 많은 돈으로 대체 뭘 하시려우?》《돈이야 많을 수록 좋은게 아니요. 돈이 돈을 긁어 뫃는 것이요. 생각해 보슈, 만약 내게 돈이 없다면 내가 무슨 특별한 인물이겠소. 누가 날 존경하겠소? 영예도, 향락도 모두 돈이 갖다 주는 것이요. 아마 내게 돈이 없다면 흑인과 같이, 나는 천대 받을 게요》하고 록펠러는 대답하였다.

록펠러의 딸이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들어 왔다. 늙은 개는 반가운양 덤썩 록펠러에게 안겼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늙은 개가 어쩌면 그리도 집주인을 닮았는지 하마트면 나는 《형제분인가요?!》하고 물을 번하였다. 작은 개는 목걸개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석으로 된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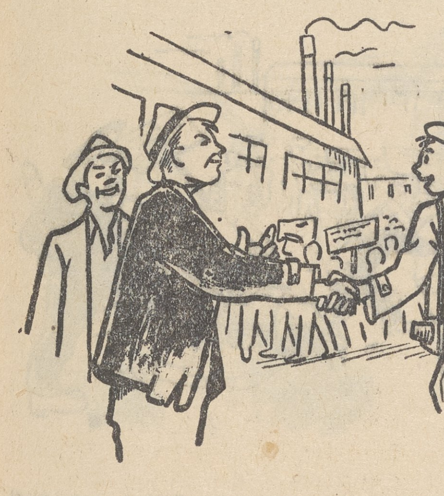


바로 이때 비서인 듯한 사나이가 황급히 달려 들어 왔다. 《록펠러 씨! 방금 시카고에서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답니다. 일대 소동이 울시다!》

《뭣이 우리 회사 로동자들이 파업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수십 만의 로동자들이 일제이 일어 났습니다.》당황한 록펠러는 전화를 들었다. 《여보 국무장관이요. 나 록펠러요. 지금 시카고에서 파업이 일어 났다는데 어떻게 된 노릇이요! 아직 모르고 있다. 대체 정부에선 뭣들 하고 있소? 빨리 대책을 세우시요. 나두 곧 시카고로 가겠소!》 그는 황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이윽고 그가 떠나는데 사복 경찰만 하여도 백여 명이 넘었다…



나는 로케트를 타고 시카고로 갔다. 파업이 일어 났다는 시카고의 어느 기계 공장에 먼저 도착한 나는 파업 지도자의 한 사람인 로동자 포스터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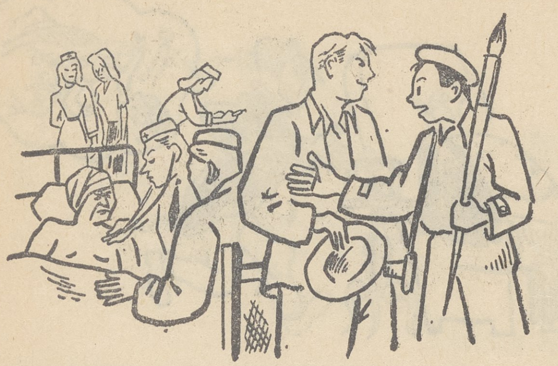


났다. 《반갑습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하고 내 손을 굳게 쥐며 그는 말하였다. 《아직 회사측에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정각 12시가 되면 제 2차 대 가두 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장 형편이나 돌아 보시지요.》 그는 친절히 나를 공장으로 안내 했다. 공장 안에 들어 선 나는 주춤하였다. 웅장하고 육중한 기계들이 설비되였으나 그것들은 불안전하여 방금 쓰러질듯 또 아득히 높은 2층, 3층에 설치된 기계들이 방금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였다. 《이렇게 안전 시설이 없는 데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업을 일으키게 된 것은 거기 있는 큰 기계의 도입으로 로동자 300 명이 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 절단기 밑에서 20여 명의 로동자들이 안전 시설이 없는 데서 죽고 부상당한데 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부상 당했다는 로동자 월손의 집에 찾아 갔다. 그의 집은 빈민굴에 있었다. 쓰러져 가는 단간 방에 들어 서니 한편에 피투성이 월손이 신음하고 있었고 다섯 명의 아이들과 그의 안해가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이윽고 서너 명의 의사들이 들어와 재빨리 그를 처치하였다. 《이들은 의과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미국엔 록펠러와 같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우리 로





동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하고 포스터는 나에게 속삭였다…

정각 12시, 나는 포스터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공장 마다에서 요란한 싸이렌 소리가 울려났고 골목 마다에서 수 많은 로동자들이 물밀듯 밀려 나왔다. 《임금을 인상하라!》, 《해고를 취소하라!》, 《안전 시설을 하라!》 이렇게 웨치기도 하고 플랑카드도 들고 행진하였다.

나는 그 대렬 속에서 미국의 유명한 한 경제학자와 알게 되였다. 《나도 동정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늙은 학자는 흰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에게 말하였다. 《량심적인 학자들, 대학생들,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내 옆에 있던 포스터는 학자와 함께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카고의 로동 계급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6년에 있은 투쟁을 당신들도 잘 알게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있소》…

파업에 승리한 로동자들은 기쁨에 설레고 있었다. 나는 포스터와 굳게 악수하고 례의 경제 학자의 집에로 초대되여 갔다. 그의 집은 소박하나 학자의 집 같았다.

바로 이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두 개의 자동차에서 복면한 사나이들 30 여명이 내려 곤봉을 들고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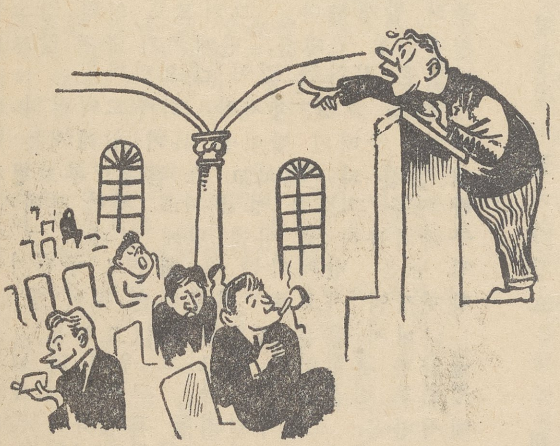
자의 집으로 달려 들었다. 《피합시다!》 당황한 학자는 나를 이끌고 천장 비밀실로 들어 갔다. 복면한 사나이들은 가장집물을 들부시기 시작했다. 잠간 동안에 집안은 온통 수라장이 되였다. 창밖의 경관들은 아무 일도 없는듯 먼 하늘'가만 멍청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놈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천장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늙은 학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파업에 참가한 것이 첫째 <죄>요, 둘째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론증한 나의 론문의 <죄>로 <비미 행동 조사 위원회>에서 공산

주의 <위험 분자>라는 락인을 받고 놈들의 습격을 받았소. 이것이 바로 미국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식 자유요.》 로인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어려 있었다.

《진리와 정의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갈아 앉지도 않는 법이죠.》하고 내가 위안하자 늙은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늙은 학자와 헤여진 후 나는 멀레스가 세운 대학을 찾아 갔다.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교실에 들어 갔더니 멀레쓰의 1938년 저작인 《전쟁과 평화와 변화》라는 것을 강의하고 있었다. 번대머리 교수는 앙글로색쏜족이 고등 인종이며 미국 국민이 《선발된 민족》이라고, 그러기에 온 세계를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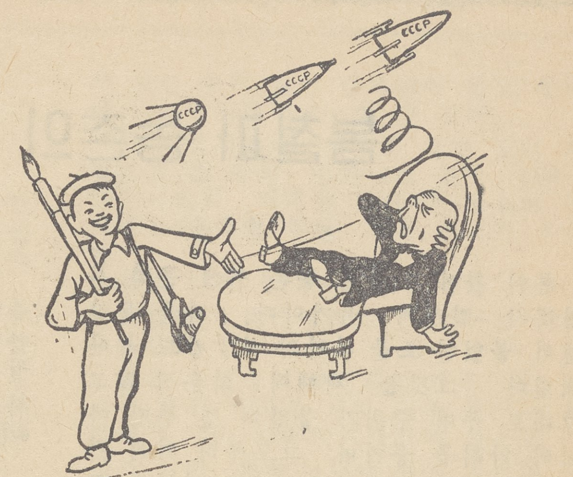
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이 대학에서는 성경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어 다윈의 《진화론》까지 강의가 금지되고 있었다. 미국의 학교들은 청년들을 기형아로 교육하고 있다.

나는 뉴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외 중학교에 가 보았다. 한 교실에 들어가 보니 한 책상에 학생들이 네명씩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학교는 방금 쓰러질 것 같았고 천장이 축 늘어져 있었다. 교수가 끝나자 늙은 교원은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에는 문맹자가 1,000만을 넘습니다. 미국은 가장 몽매하고 무지한 나라입니다.》하고 교원은 말하였다.…

로케트를 타고 워싱톤으로 돌아온 나는 백악관으로 찾아 갔다.

《무엇을 봤으며 느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대통령은 물었다.

《미국은 이렇다. 그것은 불안하고 위력한 그리고 방금 쓰러질듯 하며 앞으로 내닫는 괴물이다. 횡폭한 사람들은 이 괴물을 앞으로 앞으로 내몰면서 도중에서 부닥치는 일체의 것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이 사멸하여 가는 사회 제도의 대표자는 아직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속도를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인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한 미국인의 말이 옳습니다. 미국은 종이 범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없었다.

《대통령 각하! 내가 당신네 미국에서 그린 이 만화를 보십시요. 이 만화는 당신의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미국>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당신들이 말하는 미국과 다른 또 하나의 미국— 인민의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우리 미국>은 그 밑뿌리가 뒤흔들리고 있으며 그 통치자들인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당신네들을 규탄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요. 뭐이요? 우주라! 창을 열고 하늘을 보시요 쏘련의 제 3인공 위성, 우주 로케트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이 어데로 간단 말입니까?》

나는 백악관을 나와 선량한 미국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로케트에 몸을 실었다. 독자들! 나의 로케트는 어느 나라로 향할 것인가? 다음 호에서 다시 만나자!

글 박승수
그림 리의명

봄철과 농촌의 위생 문화

봄이 왔다. 봄은 농촌 위생 문화 사업에서 결정적 시기이다. 겨울 동안 얼어 붙었던 오물 더미와 시궁창도 녹아 내린다. 그것을 제때에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주위가 불결해 질 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기며 그로부터 여러 가지 병균들이 발생하게 되고 파리와 모기의 온상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이 녹기 시작할 때부터 주위에 있는 오물 더미와 시궁창을 비롯한 불결한 환경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구석진 골방으로부터 부엌, 마당, 도로에 이르기까지 먼지를 털어 버리고 문창지도 다시 바르며 마을의 시설들도 잘 정비함으로써 자기 부락을 위생 모범 부락으로 만들어야 한다.

파리 잡이

파리는 사람에게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유해한 곤충이다. 파리는 약 63종의 균을 옮길 수 있으며 한 마리의 파리의 몸에서 600만~5,000만 개, 파리의 장에서는 약 2,800만 개의 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파리는 적리, 장티푸스, 파라 티푸스 등의 전염병을 전파시킬 뿐만 아니라 12지장충, 회충 등의 기생충란까지도 전파한다. 때문에 우리들은 한 마리의 파리도 남김 없이 잡아야 하며 번데기 잡이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파리는 알로부터 유충이 나오고 유충은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로부터 파리가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한 마리의 암파리가 1년 동안에 2,000조 마리를 번식한다.

이런 번식력으로 보아 겨울과 이른 봄에 월동 파리를 남김 없이 박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월동하는 파리, 번데기 및 유충 박멸 사업은 2, 3월이 가장 적기이며 늦어도 4월 중순 전으로 끝내야 한다.

파리는 변소, 오물 적치장, 하수도, 가축사, 퇴비장과 같은 불결한 장소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런 장소를 청결하고 구데기, 번데기가 쓸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소, 오물 적치장, 하수도에서의 번데기, 구데기 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파 헤치고 그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 그것을 성근 채로 치면 번데기, 구데기들이 채 안에 남게 된다. 그 속에 남은 번데기는 곧 태우고 구데기는 양계장에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흙은 크로루칼키(표백분), 소독약과 혼합하여 묻고 그 우에 더 넓은 범위로 진흙을 다진다. 그러나 하수도에서만은 크로루칼키를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흙을 다지여 1주일에 1회씩 크로루칼키를 뿌려서 소독한다.

우마사, 돈사에서는 분변과 두엄을 퇴비사로 옮기고 땅을 파 헤치고 저'가락으로 번데기를 잡으며 다 잡은 후에는 그 우에 끓는 물을 붓거나 크로루칼키를 혼합하여 다지고 진흙을 10센치 정도 다진다.

퇴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잡는데 나머지 흙을 석회 질소와 두엄, 분변 등과 혼합하여 퇴비사에 넣고 진흙을 반죽하여 10센치 두터이로 매질하고 그 주위도 크로루칼키와 혼합하여 다진 후 진흙으로 다진다.

변소, 오물 적치장, 우마사, 돈사 주변을 판 흙은 비료로 하는 것이 좋으며 패인 자리는 새 흙과 크로루칼키를 혼합하여 다져야 한다.

주의할 점

1. 반드시 번데기, 구데기는 저'가락으로 잡거나 채로 잡으며 잡은 후에는 더운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2. 양계장에서 구데기를 사료로 사용할 때에는 그릇에 넣어서 사용할 것.(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 번데기는 잡은 후 곧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로 죽여야 한다.(곧 파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항구적인 변소 개조

우리는 지난 해 변소를 개조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변소들이 날림식 걸치레로 그친 결과 항구적이며 철저하게 개조 되지 못하고 있다.

항구적인 변소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변소는 우물에서 25메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주택보다 낮은 장소로서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되여야 한다.

분조는 세멘 콩크리트, 석비레 브로크, 도자기 및 도람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분조 주변은 파리, 쥐, 가축 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구데기가 분조에서 기여나와 땅 속으로 들어 가지 못하도록 30~50 센치 메터 진흙 다짐이 되여야 한다.

분조의 깊이는 1.3~1.5 메터 정도로 하고 대변'간의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1.8 메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은 문틀에 꼭 맞으며 간벽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 벽 한쪽으로는 작은 창을 만들고 급출구와 분구에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지붕은 판자, 스레트, 기와 등을 사용하여 대보수 없이 4~5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변소에는 반드시 청소 도구와 파리채, 석회 질소, 생 석회, 표백분 등을 비치하며 파리 및 구데기가 없어야 한다.

쥐 잡이

쥐는 사람들의 주택, 창고 및 식료품 공장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계가 있는 곳에 많이 분포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살 수 있다.

쥐는 번식력이 대단히 강한 것이 특징으로 한 쌍의 쥐가 1년 간에 500~800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새끼는 수개월 후면 성숙 상태에 이른다.

쥐는 이른 봄(3~4월)과 이른 가을(9~10월)에 대대적으로 박멸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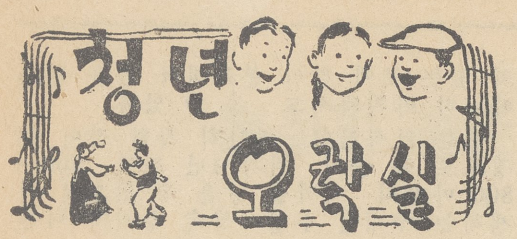
쥐는 전염병의 매개체인 벼룩, 이, 진드기 등의 숙주로 되며 여름 철에는 한 마리가 150~320 마리까지의 벼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쥐는 사람의 식량에 막대한 손실을 주며 실내의 각종 물건을 훼손시킨다. 기아시에 큰 쥐 한 마리가 먹는 량은 25 그람으로부터 100 그람까지 달하는 바 만일 우리 나라에 1,000만 마리의 쥐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하루 30 그람씩 먹는다 해도 하루 300 톤, 1년간에는 11만 톤의 식량이 랑비되는 것으로 된다.

때문에 우리들은 쥐에 대한 방어 위생 대책을 취할 뿐 아니라 각종 방법으로 쥐를 박멸하기에 노력하여야 겠다.

쥐를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가루로 사용하는 방법, 알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물통이나 물'독으로 쥐잡는 법, 함지나 책상 설합으로 쥐 잡는 법, 유리병으로 쥐 잡는 법, 쥐 틀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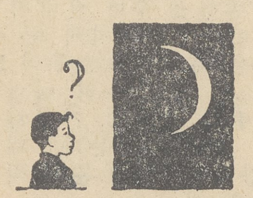
그 중 함지나 책상 설합으로 쥐를 잡는 것은 우리 농촌 가정에서도 손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즉 25~30 센치 메터 정도 길이의 나무 가지의 한쪽을 동구렇게 깎고 거기에 먹을 것을 잘 떨어지지 않게 매 달고 책상 설합이나 함지를 세워 놓은 다음 아래로부터 $\frac{1}{8}$정도의 지점에 나무 가지를 받쳐 놓는다. 식료품의 높이는 약 7~10 센치 메터 정도가 되게 하는 바 쥐가 와서 식료품을 잡아 당기면 설합은 쥐를 내려 덮는 것이다.

이외에도 더운 물을 쥐 구멍에 넣으면 쥐들이 밖으로 달려 나오는 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비 자루로 때려 잡는 법도 있으며 고양이를 다량 양육하여 쥐를 없애는 법도 있다.



초생 달이냐, 그믐 달이냐?

그림의 달을 보고 동무들은 초생 달인가, 그믐 달인가를 설명해 보라!



강'가에서 생긴 《진퇴량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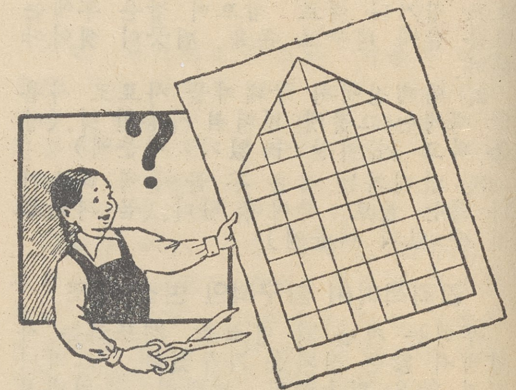
강'가에 이른 창수는 《진퇴량난》에 처했다. 염소를 끌고 승냥이를 안고 양배추를 들고 강을 건느자니 배가 작은 것이여서 한꺼번에 건늘수가 없었다.

우선 양배추를 싣고 염소를 실으면 염소가 양배추를 먹어 치울 것이고 승냥이와 염소를 실으면 싸울 것이 아닌가? 양배추와 승냥이를 실으면 승냥이가 양배추를 해칠수가 있으며 승냥이는 바'줄로 목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놓여날 수가 있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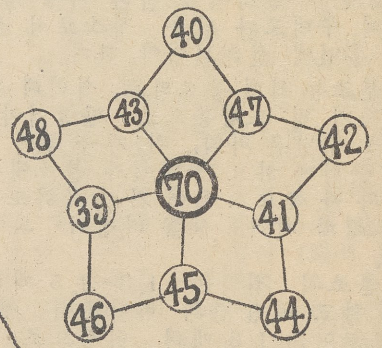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강'가에서 생긴 창수의 《진퇴량난》을 풀수 있을가? 날은 자꾸만 저물어 오는데 독자들은 어서 창수를 도와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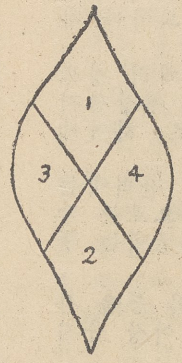
정방 4각형 보자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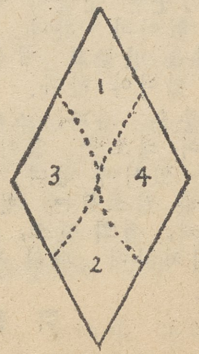
이 천 쪼박지(그림)로 두개의 모서리를 짤라서 정방 4각형의 보자기를 만들어 보라!



★ 1호의 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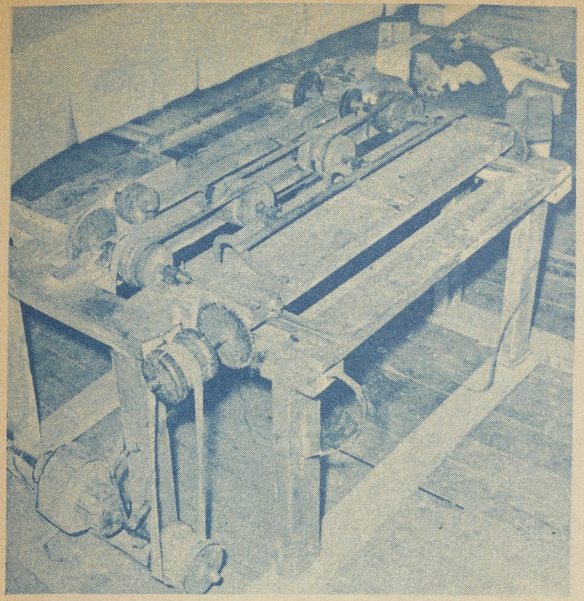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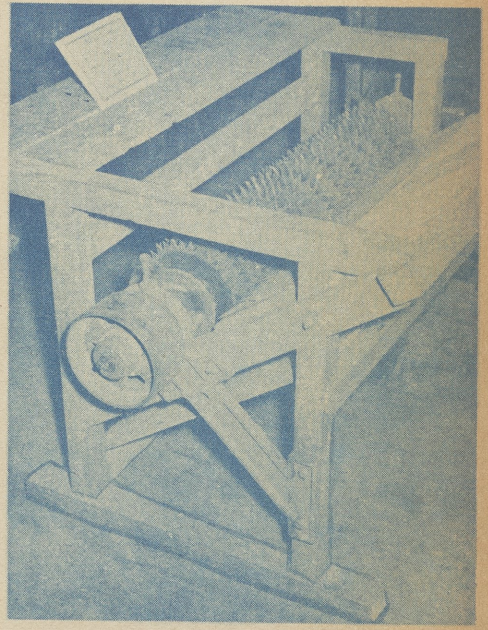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서의 청년들의 창조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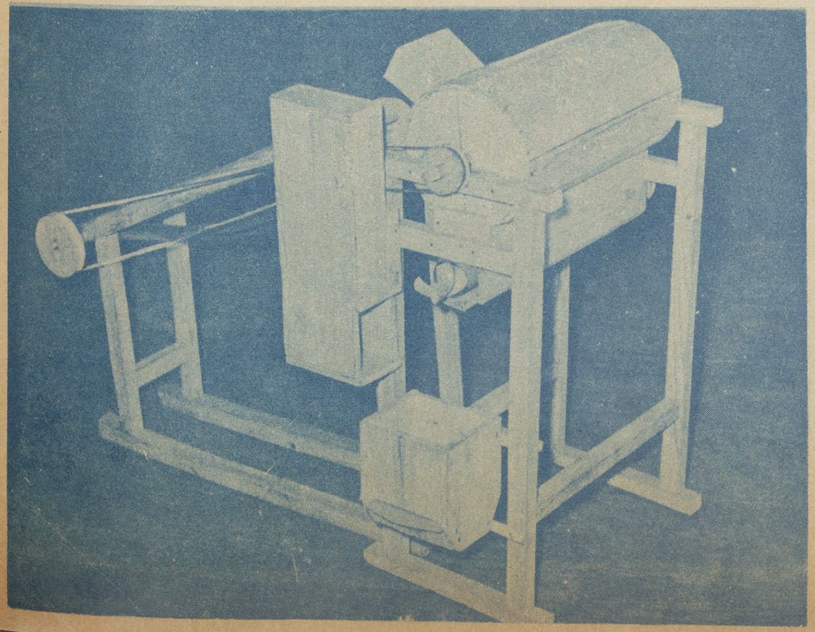
랭상모 문짝 제작기

함남도 리원군 선곡 농업 협동 조합 김 필승 동무가 창안한 랭상 모판 문짝 제작기는 8시간에 500매의 문짝을 제작하는바 동 조합에서만도 9천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이 기계를 보급하여 리원군적으로 금년 봄에 18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다.



사료 분쇄기 →

평북 도영 철공장 창의 고안 그루빠에서 창안한 사료 분쇄기는 인력보다 5배의 능력을 낸다.



←

수력 자동 종합 탈곡기

이 탈곡기는 벼 뿐만 아니라 콩, 조도 탈곡할 수 있는 기계이다. 이 기계로 1시간에 2.5톤을 탈곡할 수 있는바 모든 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여 있으며 탈곡 북데기 선별, 정선 등이 종합적으로 기계화되여 있다. 이 탈곡기는 함남도 덕성군 중돌 농업 협동 조합 박 진혁 동무가 창안하였다.



조선
추